


1-15-2002

## 교회부흥을 위한 관계전도전략에 관한 연구

Tai Young Jung 정태영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정태영, "교회부흥을 위한 관계전도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2.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STRATEGY FOR CHURCH REVIVAL THROUGH RELATIONSHIP EVANGELISM**

written by

**TAI YOUNG JU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Jeong Kii Min

---

Moon Sang Kwon

---

Seyoon Kim

January 15, 2002

**A STRATEGY FOR CHURCH REVIVAL THROUGH  
RELATIONSHIP EVANGELISM**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TAI YOUNG JUNG**

JANUARY 2002

# 교회부흥을 위한 관계전도전략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종기 교수

## 정 태 영

2002년 1월

## Abstract

A Strategy for Church Revival through Relationship Evangelism

Tai Young Jung

Doctor of Ministry

2002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aims to develop a strategy of relationship evangelism and to apply it to New Jecheon Church which the researcher have been serving.

The study consists of the four parts. In the first part, I analyze the ministerial environment for the relationship evangelism. I analyze in particular New Jecheon Church's ministerial environment: the church's size, history, environment, and potentiality of growth, and etc.

In the second part, which can be an introductory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evangelism, I discuss about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efficacy of the relationship evangelism. In this part I mainly focus on establish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relationship evangelism.

In the third part, I develop a specific strategy for the relationship evangelism, which takes Paul's evangelism strategy written in the New Testament as its model. Considering that the relationship evangelism has the unbelievers as its target, I study about their culture and the most suitable and effective approach to them. And I develop a relationship evangelism program with which the church members can be trained in the matters of thought, language, and life.

In the fourth part, I discuss how we can make the new believers, who will

be ga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evangelism, settle down in the church. I hope that this research can encourage the Korean churches to get involved in the relationship evangelism and in so doing contribute to the Korean churches' growth.

Theological Mentors: Jeong Kii Min,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 감사의 말씀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했던 죄인을 부르셔서 존경하는 스승 박윤선 박사님, 김희보 박사님, 김세운 박사님의 문하에서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리한 지성으로 지도해주신 민종기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종기 박사님께서 논문지도를 최종으로 하시던 날, “내용이 훌륭합니다. Great!” “축하드립니다. 결과: 합격(合格)” 이 글은 저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아들의 학업을 격려해주신 부친 정진은 권사님과 아들의 학업을 자랑스러워하시며, 늘 희생을 아낌없이 주시는 모친 원갑순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진로를 지도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 형님 이현수 목사님과 부족한 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두 아우 정세영 목사님과 정보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기획하며, 작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용기를 주고, 사랑을 베풀었으며, 글쓰는 이의 행복을 함께 나누었던 사랑하는 아내 김은령 사모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빠의 만학을 함께 기뻐하며, 행복을 나누는 자랑스런 두 딸 마리아와 미리암에게 아빠의 사랑을 전합니다. 특별히 한학기 전액 장학금을 아빠의 학비로 협력한 마리아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간과 학비와 기도로 배려해 주신 새제천교회 모든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이 출간되기 까지 도움을 주신 김태석 목사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월 정태영

## 목 차

Abstract .....	ii
감사의 말씀 .....	iv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제 2 장 관계전도를 위한 목회현황 분석 .....	5
제 1 절 새제천교회의 목적 정의 .....	5
제 2 절 목회철학과 비전 .....	7
1. 기도목회 .....	7
2. 전도목회 .....	10
3. 말씀목회 .....	11
4. 목회비전 .....	12
제 3 절 지역사회의 현황 .....	12
1. 지역사회 연혁 .....	14
2. 지역사회 개요 .....	15
3. 지역사회 산업 .....	16
4. 지역사회 문화 .....	17
5. 지역사회의 영적 상황 .....	18
제 4 절 새제천교회 현황 .....	19
1. 새제천교회 연혁 .....	19
2. 교회의 환경 .....	20
3. 교세 현황 .....	21
가. 교회직원 현황 .....	21



나. 성도들의 신급현황 .....	21
다. 연도별 새가족 등록현황 .....	21
라. 연도별 일반재정 결산내역 .....	22
마. 부동산 소유현황 .....	22
제 3 장 관계전도의 특성 .....	23
제 1 절 관계전도의 개념 .....	23
1. 1918년 영국 성공회에서 의 개념 .....	3
2. 1974년 로잔 계약에서의 개념 .....	3
3. 오스카 톰슨의 전도 개념 .....	24
4. 죠셉 엘드리히의 전도 개념 .....	25
5. 레이튼 포드의 전도 개념 .....	26
6. 관계전도의 개념 .....	27
제 2 절 관계전도의 효율성 .....	28
1. 좋은소식을 보여주는 부흥운동 .....	28
2.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부흥운동 .....	29
3. 불신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아가는 부흥운동 .....	30
4. 교회의 전도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부흥운동 .....	31
5. 성도의 영성을 회복시켜서 교회가 부흥하는 운동 .....	32
제 3 절 신약성경에 나타난 관계전도 .....	33
1. 예수그리스도의 관계전도 .....	34
2. 사도들의 관계전도 .....	37
3. 평신도의 관계전도 .....	39
제 4 장 관계전도전략 .....	43
제 1 절 바울의 전도전략과 문화 .....	43
1. 문화에 민감한 바울의 관계전도 .....	43
2. 전도여행을 통한 관계전도 .....	45

3. 문서를 통한 관계전도 .....	46
제 2 절 관계전도와 불신자 문화이해 .....	48
1. 관계전도를 위한 동일시 원리 .....	48
2. 관계전도를 위한 기독교 대중문화 창출의 필요성 .....	50
3. 관계전도를 위한 기독교 대중문화의 사역 .....	53
가. 지역사회 정보 연구원 .....	53
나. 가정문화 회복운동 .....	54
다. 기독교 문화원 운영 .....	55
제 3 절 관계전도를 위한 사회봉사 .....	55
1. 성경속에 나타난 사회봉사와 관계전도 .....	56
2. 한국교회 초기의 사회봉사와 관계전도 .....	57
3. 관계전도를 위한 사회봉사의 방법 .....	59
제 5 장 관계전도를 위한 청지기 훈련 .....	62
제 1 절 관계전도를 위한 생각훈련 .....	62
1. 절대 하나님 중심의 생각 .....	64
2. 절대 긍정의 생각 .....	64
3. 절대 사랑의 생각 .....	65
제 2 절 관계전도를 위한 언어훈련 .....	66
1. 절대 믿음의 말을 해야함 .....	67
2. 절대 기도의 말을 해야함 .....	68
3. 절대 안해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분변함 .....	70
제 3 절 관계전도를 위한 생활훈련 .....	74
1. 관계전도를 위한 성령세례 운동 .....	75
2. 관계전도를 위한 경건훈련 .....	78
3. 관계전도를 위한 성도와 불신자의 교제훈련 .....	81

제 6 장 관계전도를 통하여 출생한 새가족 양육원리 .....	86
제 1 절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감격과 확신 .....	86
1.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감격과 확신 .....	87
2. 예수의 온전한 제자 .....	88
3. 목회철학이 분명하고 확실히 .....	88
4.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기도하는 자 .....	89
5.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의 삶으로 충성 .....	89
제 2 절 새가족 양육의 성경적 원리 .....	89
1. 예수의 양육원리 .....	90
2. 사도 바울의 새가족 양육원리 .....	91
3. 평신도 바나바의 새가족 양육원리 .....	98
제 3 절 새가족 양육의 실제 .....	95
1. 새가족 환영의 실제 .....	95
2. 새가족의 의식구조가 변화하는 과정 .....	96
3. 새가족 양육의 교육과정 .....	98
제 4 절 새가족 양육의 사후관리 .....	99
제 7 장 결 론 .....	100
제 1 절 요약 .....	100
제 2 절 제안 .....	103
참고문헌 .....	106
Vita .....	118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새제천교회는 1989년 10월 8일에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개척 설립된 이후 누가복음 4장 43절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sup>1)</sup>임을 알고 지금까지 충성함으로서 계속 부흥되어 왔다. 어떻게 하면 이 도성의 시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 28:19-20) 하며, “희어져 추수하게 된”(요 4:35) 영혼의 알곡을 어떻게 추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새제천교회의 전도 환경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일반 성도들은 전도 불감증과 전도 공포증, 전도 불안증, 전도 기피증에 걸려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많은 성도들은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나 확장보다는 지 교회의 성장에 목표를 두고 시행하였으며, 교회 자체의 체질과 존립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지 교회의 성장에 대한 지나친 과욕이 총동원 전도주일, 총력 전도주일, 축호전도, 노방전도 등의 행사를 갖게 하였는데<sup>2)</sup> 물량위주의 전략과 상업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세속적이며, 변

1) Herman Ridderbos, 하나님 나라 (The Coming of the Kingdom), 오광만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11.

2) 김형천, 효과적인 복음전도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7), 37.

질된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고, 교회 행사로 인하여 실망한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다.

우리 나라의 복음화 비율이 국민의 10퍼센트 미만이었을 때는 노방전도, 축호전도, 외침전도 등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의 복음화 비율은 약 25퍼센트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전도를 받아 보았으며, 비록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 않을지라도 친구가 교회 집사 또는 장로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중에는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다. 직장에는 교회의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집사, 권사, 장로가 있으며, 그들의 언행과 삶을 직접 목도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겠는가? 먼저 믿는 성도들의 언행이 좋은 소식이 되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세워주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존경하며 섬기는 향기 가득한 삶으로 이웃을 감동 시켜야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딤후 1:19)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한 삶의 청지기가 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며, 자연스럽게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도방법 즉 관계전도를 이루어야 한다.

오스카 톰슨(W. Oscar Thompson)은 그의 책 관계중심 전도에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랑의 방법을 통하여 동심원 안에 있는 자아,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 이웃, 사업동료, 아는 사람들,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봄으로서 결국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며, 구원받게 됨으로 관계전도가 성취된다는 것이다.<sup>3)</sup> 새제천교회는 2000년 10월 교회설립 11주년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전도사역에 대한 진단을 받게 하였다. 명성훈 박사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진단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4)</sup> 첫째, 전도에 대한 목회철학을 진단하여야 한다.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가 목회철학의 최대 우선 순위가 되는 교회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요, 교회의 모든 활동이 영적 재생산을 도모하는 사역이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를 진단하여야 한다. 셋째, 전

3) W. Oscar Thompson, 관계중심 전도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 주상지 옮김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사, 1984), 11-28.

4)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1998), 203-210.

도 조직과 투자에 대한 진단이다. 넷째, 전도 전략에 대한 진단이다. 다섯째, 전도훈련 내용에 대한 진단이다.

새제천교회는 전도사역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한 관계전도 전략을 갖게 되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80퍼센트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는 보고가 있다.<sup>5)</sup> 우리가 믿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웃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은 신뢰와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며, 그 다음 적절한 시기가 이르렀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여야 한다.<sup>6)</sup>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sup>7)</sup> 예수께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고 하셨다.

관계전도는 전도운동의 초점을 교회 성장에서 한 사람의 영혼에게로 전환하게 하며, 지 교회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에 두게 한다.<sup>8)</sup> 관계전도는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다정스런 감정’<sup>9)</sup>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 또한 전도하는 자와 전도를 받는 자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행의 원리로 전도하기 때문에 말로 가르치는 그 이상의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sup>10)</sup> 그러므로 관계전도는 21세기 새 시대의 상황에 어울리는 구원 전도 사역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전략임을 확신하였기에 ‘교회 부흥을 위한 관계전도 전략에 대한 연구’를 본 논문의 주제로 선택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관계전도 전략만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대안임을 확신하고 새제천교회 목회 현장에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210.

6) R. A. Torrey, 어떻게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까? (How to Bring Men to Christ?), 김준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14-15.

7) Rolle C. Sunny, 개인 전도하는 법, 서흥종 역 (서울: 도서출판 목회자료사, 1988), 11.

8)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28-38.

9) Elmer L. Towns, 제자 훈련을 통한 복음 전도전략, 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10.

10) Leroy Eims, 추수하는 일군 (Laboring in the Harvest),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1986), 70-7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 외의 전도신학 관련저서와 자료를 연구하며, 새제천교회의 목회 현장을 토대로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서술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목회현장을 중심으로 새제천교회의 목적 정의, 목회철학과 비전, 지역사회의 현황, 새제천교회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목회 토양을 연구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관계전도의 개념, 관계전도의 효율성, 신약 성경에 나타난 관계전도를 연구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바울의 전도전략과 문화, 관계전도와 불신자 문화이해, 관계전도를 위한 사회봉사를 관계전도 전략적 차원에서 연구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관계전도를 위한 청지기의 생각훈련, 언어훈련, 생활훈련을 연구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관계전도를 통하여 출생한 새가족의 양육원리를 중심으로 새가족 양육자의 자세, 새가족 양육의 성경적 원리, 새가족 양육의 실제, 새가족의 사후관리를 연구할 것이다. 제7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새제천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제안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논문은 새제천교회에 한정된 연구이므로 자료가 부족함은 물론 전도 사역의 경험도 제한되었음을 밝히며,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교회의 건강 진단과 더불어 관계전도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 제 2 장

### 관계전도를 위한 목회현황 분석

좋은 땅에 파종된 씨앗만이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가 되며(마 13:23),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시 1:3), 교회도 좋은 땅 시냇가에 심겨져야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나라를 힘차게 건설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새제천교회의 목적정의, 목회철학과 비전, 제천시 지역사회의 현황, 새제천교회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좋은 땅 시냇가에 파종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새제천교회의 목적 정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에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밑에서 하나가 되어 왔고, 하나로 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가 되어질 선택을 받은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만물로 총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sup>11)</sup>이라고 하였으며, 박형룡 박사는 교의신학 교회론에서 “교회는 성도의 교통”(communio sanctorum)<sup>12)</sup>이라고 하였다. 루터와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외면적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안에서 성화되고, 그를 머리로 하여 그에게 연합된 자들의 단체로 보았다.<sup>13)</sup>

이 교회는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특징으

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with Original Text), 송종섭, 전상기, 송봉길 역 (서울: 소망사, 1979), 105.

12)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교의신학 교회론, Vol. Ⅶ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77), 31.

13) Ibid., 35.



로 하며,<sup>14)</sup>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하신 말씀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특별히 섭리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불멸한다.<sup>15)</sup>

‘이토록 존귀한 교회가 왜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에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과 사역, 그리고 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이요, 목회 사역의 원인과 동기, 그리고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역의 목적이 선명하게 정해졌을 때 성도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역하며, 화목한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며 사역하게 된다. 교회의 목적이 선명하면 중대한 결정을 할 때도 우선과 차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빛을 렌즈의 한 초점으로 모으면 종이를 태우고 더 높은 차원으로 집중시키면 레이저빔과 같이 철판을 자르듯이 교회의 힘도 분명한 목적에 집중시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교회의 목적이 선명하면 사역을 쉽게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다. 사역을 평가하는 질문은 ‘지금 이 사역이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역을 지혜롭게 잘 하고 있는가?’이다.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건강과 부흥을 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sup>16)</sup>

새제천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 마 28:19-20)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지상대계명(the great commandment, 마 22:37-40)<sup>17)</sup>을 지킴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이다.<sup>18)</sup>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사역을 위해서 다음의 일곱 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첫째,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계시의 응답으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린다.<sup>19)</sup> 둘째, 전도 공동체로서 기쁜 소식을 전

14) Louis Berkhof, 기독교 신학개론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운 역 (서울: 은성문화사, 1974), 267.

15)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296-298.

16)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새들백교회와 윌로우 크릭교회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108-115.

17) 명성훈, 장년출석 300명 돌파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1998), 48.

18) 시 22:23, 마 5:16, 롬 15:6, 빌 1:20-21, 고전 6:20, 10:31, 요 14:13, 15:8-9, 벧전 4:11.

19) 정태영, 천국으로 가는 길 (제천: 새제천교회 출판부, 1991), 238-250.

파하는 증인이 되며, 오늘은 제천, 내일은 한국, 모래는 세계를 향한 영혼 구원에 지혜와 재능과 열정을 다하여 충성한다.<sup>20)</sup> 셋째, 양육 공동체로서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새신자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이 되게 한다.<sup>21)</sup> 넷째, 친교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는 구역과 소그룹 사역으로 동일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된 지체임을 알고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sup>22)</sup> 다섯째, 봉사 공동체로서 성경적인 기독교 윤리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섬기며, 기독교 경제윤리와 기독교 성(性)윤리, 기독교 생명윤리와 기독교 복지윤리로 어지러운 세상을 똑바로 세우며 섬긴다.<sup>23)</sup> 여섯째, 천국 공동체로서 상실했던 에덴동산을 회복한 성도로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 행복, 만족, 평화, 풍요와 윤택함을 누린다.<sup>24)</sup> 일곱째, 예수 재림 환영 공동체로서 오직 깨어 있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자가 되며, 믿음의 용기와 인내의 소망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sup>25)</sup>

## 제 2 절 목회철학과 비전

구약과 신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마 22:37-40). 이런 이유때문에 본 연구자의 목회철학은 기도목회, 전도목회, 그리고 말씀목회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배달하는 사역이다. 이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배달 받은 성도들이 행복해 하고, 만족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 1. 기도목회

새제천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며,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무릎만큼 교회가 된다.<sup>26)</sup> 기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사단을 이기는 비

20) 정태영, 천국으로 가는 길, 307-316.

21) Ibid., 316-318.

22) Ibid., 185-237.

23) Ibid., 319-335.

24) 김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6), 56-82.

25) Ibid., 592-605.

26) 갑충만, 대전중앙교회 50년사 (대전: 도서출판 큰 빛, 1997), 331.

결이다.<sup>27)</sup>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sup>28)</sup>임을 확신하고 기도에 생명을 건 목회를 하고 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한아름 안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들인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인 호흡이다.

아울러 기도를 통하여 부족한 인간의 본성과 무능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 기도는 끊임없이 죄에 빠지는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력(total depravity or total inability)<sup>29)</sup>의 죄성과 죄인 됨을 고백하여 죄를 용서받고,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다.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마음의 대로를 넓혀준다. 기도는 완전한 개인지도 교사이며, 은혜로운 설교를 위한 학교요, 기독교 사상을 밝아지고 명료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다.<sup>30)</sup>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음모를 꾸미는 사단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방법이며, 성령 충만을 받고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이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분주한 생활, 내일로 미루는 게으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어리석음(약 4:3), 회개하지 않는 죄악(사 1:15-17), 용서하지 않는 마음(막 11:25), 그리고 인색한 마음(잠 21:13)이다. 그러므로 새제천교회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힘쓰고 있다(마 3:17, 행 3:19, 요일 1:9, 사 59:1-3, 겔 18:31, 욕 2:12-13).

새벽기도회는 오전 4시 50분에 시작하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더니”(막 1:35)하신 말씀을 따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고 있다. 새벽기도회는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하며, ‘한평생 변함없이 새벽기도를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제목을 통성기도 시간에 주며, 예배 인도자를 따라서 복창케 한다.

27) 송귀옥, 개혁주의 기도학 (서울: 도서출판 크리폼, 1999), 152.

28) 정태영, 천국으로 가는 길, 253.

29) 이근삼, 칼빈·칼빈주의 (부산: 고신대출판부, 1972), 77.

30) E. M. Bounds, 기도의 능력 (Power Through Prayer), 이정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1), 60-61.

특별히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가 출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교회 버스를 새벽에 운행하며, 성전에 모이는 횟수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 일년에 주일 낮예배만 52회 참석하는 성도보다 주일 밤예배 52회를 더 출석하면 그 만큼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이요, 받게 될 것이며, 수요일 밤예배 52회, 새벽기도회 313회, 금요심야 기도회 52회, 구역예배 52회를 더 참석하면 그 만큼 더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요, 또한 받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하였고, 시편 122편 1절에서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 하였도다”하였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전에서 여호와와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삼상 3:4),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성전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만났으며(눅 2:22-35),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구주 예수를 만났다(눅 2:36-38).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보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소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지성소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은소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제단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한번이라도 더 많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새벽기도회 순서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찬양, 신·구약 순서대로 성경 한장을 돌아가며 읽고, 강론, 강론자의 목회기도, 주기도문, 찬양을 한 장 부른 후 주여 삼창을 한후 통성기도에 들어간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차례대로 읽고 있으며, 1989년 10월 새제천교회를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신·구약 삼독을 마쳤다. 새벽기도회 강론은 본문을 30번 이상 정독을 한후 본문에서 기도제목을 찾으며, 경성을 다하여 주해식으로 강론하고 있다.

아울러 100일 작정 새벽기도회, 40일 작정 새벽기도회, 세이레 작정 새벽기도회, 열두 보석 새벽기도회, 금요심야기도회, 밤 9시 기도회, 아침 금식 기도회, 24시간 릴레이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성도들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단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천번제 기도회, 세이레 영시 기도회 등을 가질 계획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분쟁이 없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21세기 초일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초지일관, 일편단심, 일사각

오의 신앙으로 기도목회를 힘쓰고 있다.

## 2. 전도목회

교회 사명의 원리가 전도요, 교회 부흥의 비결이 전도이다. 전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항복시키는 무기이다.<sup>31)</sup> 이 진리를 깨달은 새제천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고후 5:14)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 16)라고 외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새제천교회는 목회가 바로 전도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의식이 충만하며,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표어를 늘 사용하고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불신자를 구원하고 새신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영적 재생산을 도모하는 일에 목회의 초점을 두고 있다. 찰스 스펄전(Charles H. Spurgeon)은 탁월한 설교가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역의 상당한 부분을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거둬나게 하는 사람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는 것과 같지만 전도자를 양육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 계속 마실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다”<sup>32)</sup>고 믿었기 때문이다.

새제천교회는 피터 왜그너가 “교회의 희생적인 봉사 사명에서 전도는 우선 순위이다”<sup>33)</sup>라고 했듯이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서도 153 전도대사역, 매년 2월중에 실시하는 심령부흥회를 통한 전도집회, 태신자 전도사역, 한 사람이 한 달에 두시간 이상과 이천원 이상을 이웃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하는 ‘둘둘전략운동(two-two strategies movement), 지역사회 복음화를 목적으로 매월 5,000부씩 발행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제천크리스천뉴스를 통한 문서 선교사역, 사랑의 편지 전도운동, 사영리 개인전도, 관계전도 등의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31) 정문호, 성경적 교회 성장학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8), 36.

32)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209-210.

33) Thom S. Rainer, 교회성장 교과서, 193.

### 3. 말씀목회

성도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고, 교회의 사역 원리가 말씀에 근거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 좋은 땅으로 경작할 때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된다.<sup>34)</sup>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건축되어지며,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며, 말씀을 이루어 가는 말씀 공동체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하셨으며, 이 말씀으로 공생애의 사역 원리를 삼으셨다.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선포,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sup>35)</sup> 참된 교회로 유지되고 일치룰 이루면서 교회의 성숙을 지향하는 길은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sup>36)</sup>

아울러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절대로 필요한데 이 회개 운동과 교회 갱신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한다.<sup>37)</sup> 본 교회는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온전한 성도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제자로 양육할 수 있다’<sup>38)</sup>는 확신 가운데 말씀 목회에 힘쓰고 있다. 말씀 목회는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이루어 가는 인격적인 목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말씀을 따라 계속 성장하며, 말씀과 함께 성숙되어지는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성도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평생교육을 받아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됨으로써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기도원 집회 등에서 빛나간 강론을 들었을 때에도 큰 혼란이 없이 받아 드릴 것만 수용하는 강점이 나타난다. 주일 낮 강론은 교회 절기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으며, 주일 저녁 강론과 수요일예배 강론은 연속 강해설교를 하고 있다. 주일학교 성경공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에서 발행한 계단 공과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역예배도 총회 교육부에서 발행한 구역공과

34) 정문호, 성경적 교회 성장학, 30.

35) 안영복,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교회론과 목회철학 Vol. 13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155.

36) 이근삼,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교회론과 목회철학 Vol. 13, 159.

37) 한철하,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교회론과 목회철학 Vol. 13, 164-172.

38)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7), 143.

를 사용하고 있다.

성경 읽기는 일년에 성경 일 독을 위한 성경 읽기 운동과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성경일독수련회를 실시하고 있다. 새신자 성경공부, 1대1 양육 성경공부, 기초교리 성경공부, 바울성서대학 성경공부, 지도자 양육 성경공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씀 목회에 충실하고자 힘쓰고 있다.

#### 4. 목회의 비전

새제천교회의 목회 비전은 제천시민 14만 8천 3백 8명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한국의 양심은 제천입니다. 제천의 양심은 새제천교회입니다'와 '21세기 초일류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은혜로운 교회를 지향하며, 다음의 원리를 목회사역에 적용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복음적인 목회 사역을 통하여 제천시민의 십일조 영혼을 구원하는 권능이 총만한 전도 공동체가 된다. 둘째,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하여 평신도가 목회의 주체가 되는 아름다운 영혼들의 은혜 공동체가 된다. 셋째, 우리는 가정사역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룸으로서 세워주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 넷째,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파 및 영상매체 방송사역, 인쇄매체 사역의 일환으로 제천 크리스천뉴스 문서선교 사역, 유치원 및 학교사역,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갈 곳 없는 고아들을 위한 그룹 홈 사역, 장애자들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 등 복지선교 사역, 기독교 문화원을 통한 문화 사역, 제천의 빼어난 자연을 이용하는 자연 치료 병원사역, 결혼 상담소 사역, 환경보존 등의 사역을 통하여 차세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함은 물론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공동체가 된다. 다섯째, 국내의 농어촌교회와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 선교까지 애써서 주님께 서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고 칭찬 받는 예수 재림 환영공동체가 된다.

#### 제 3 절 지역사회의 현황

새들백교회를 개척한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는 교회를 시작하기 6년전에 로

버트 슐러(Robert Schuller) 목사가 쓴 당신의 교회는 진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Your Church Has Real Possibilities)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 로버트 슐러는 1955년도에 지역사회 시민 수백명을 찾아다니면서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는가?’와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확신한 릭 워렌은 자신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 12주 동안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불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하였다.<sup>39)</sup> 첫째, 당신은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당신은 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셋째,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당신이 다닐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종류의 교회를 원하십니까? 다섯째,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을 주는 목사가 되도록 내게 주고 싶은 충고는 무엇입니까?

이 조사를 통해서 새들백 벨리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는 ‘설교가 지루하다, 설교가 내 삶과 별 연관이 없다, 기존 교인들은 방문자에게 불친절하다, 교회는 내 자신보다 내 돈에 더 관심이 많다, 교회 주일학교는 어린이교육을 제대로 시키는지 걱정이 된다’ 등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릭 워렌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첫 예배에 205명이 참석하였고, 10주 안에 82명이 자신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였다.<sup>40)</sup> 릭 워렌은 “고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지역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sup>41)</sup>고 하였다. 교회가 지역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에 적응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보가 꼭 필요하다. 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역교회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대기업의 마케팅 담당 중역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야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한 후 교회가 의사결정을 하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39)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215-217.

40) Ibid., 217-221.

41) Ibid., 221-222.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sup>42)</sup>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구체적인 삶의 터전, 곧 특정한 사회나 지역사회 속에서 생존하는 개체 인간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인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지역사회는 깊은 관계가 있기에 한국교회는 사회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 교회는 지역사회가 마치 교회를 위해 존재하며, 모든 선교 활동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태도와 성도들이 생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주민의 삶의 현실과 현장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은 교회를 향하여 무관심한 교회, 무능한 교회, 자기들 밖에 모르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교회 등의 표현으로 교회를 사갈시(蛇蝎視)하고 공격한다.<sup>43)</sup>

새제천교회는 상기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정신<sup>44)</sup>으로 지역 사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동네로 가꾸기를 다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철학을 마련하였다. 첫째,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터전이요, 현장이다. 둘째, 지역 사회는 신앙공동체를 출산시킨 인간의 공동체이다. 셋째, 지역사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구체적인 일터이다. 넷째,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하위 단위이다. 다섯째, 지역사회는 그리스도가 계속 일하고 계시는 복음 선포의 현장이다. 여섯째, 지역사회는 교회와 사회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지점이다.

### 1. 지역사회 연혁

제천시는 고대 부족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삼한 시대에는 진한의 발상지이었다. 서기 4세기 초에는 한강 하류지역 일대를 차지한 백제에 속한 바 있으나, 북쪽 압록강 유역에서 일어난 고구려 세력의 남하 정책과 반도 동남부에서 일어난 신라 세력의 북상 정책으로 삼국 사이에서 공격의 중심지이었다. 서기 5세기 중엽 고구려 장수왕 때에는 그 세력을 남으로 뻗쳐 백제의 왕도 한성(지금의 원주)을 함락시킴으

42) George Barna,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 (Marketing the Church), 김광점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7), 91-97.

43) 유의웅 편,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129-133.

44) Ibid., 134-135.

로써 제천은 고구려에 속하게 되고 지명은 '내토'라 불렸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됨에 따라 신라에 속하게 되었으며, 경덕왕 16년(757) 지명이 내제군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23년(940)에 제주군으로 개칭하였고, 성종 11년(992)에 의원 또는 의천이라 불렀고, 현종 9년(1018)에 제주는 원주에 붙이었고, 청풍은 충주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 태조 4년(1395)에 제주는 충청도에 속하고, 조선 태종 13년(1413) 지방조직을 개편하여 전국을 8도로 나누었으며, 제주를 제천이라 개칭하고 현감을 두게 되었다. 조선 고종 33년(1896) 전국을 13도제로 개편할 때 충청북도 제천군이 되었고, 1940년 1월 1일 제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0년 4월 1일 제천읍이 제천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1994. 8. 3 공포)에 의거 제천시와 제천군을 통합하였다.<sup>45)</sup>

## 2. 지역사회 개요

제천시는 충청북도의 북부로서 소백산맥과 차령산맥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단양군, 서쪽은 충주시, 남쪽은 경상북도 문경시, 북쪽은 강원도 원주시 및 영월군과 인접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이 1읍, 7면, 9동의 중소도시이다.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시청의 좌표선 위치는 동경 128°11'26"이며, 북위 37°07'46"이다.<sup>46)</sup> 기후는 소백산맥과 차령산맥에 둘러 싸여 있어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기온은 10.3℃, 2000년도 총 강수량은 1,190밀리미터이었다. 제천시의 면적은 882.37평방킬로미터(2억 6천 7백만평)로 농경지 13.5퍼센트, 임야 73.8퍼센트, 기타 12.7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면적의 11.8퍼센트이다. 제천시의 세대수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48,519세대이며, 인구는 148,308명이다. 세대당 가족 수는 3.1명이며, 매일 4.5명 출생, 2.9명 사망, 결혼 2.6건, 이혼 1.0건이다.

제천시의 읍, 면, 동별 세대 및 인구수와 외국인 358명을 제외한 연령별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봉양읍은 9,124명(3,272세대), 금성면은 2,791명(936세대), 청풍면은 1,511명(567세대), 수산면은 2,742명(1,048세대), 덕산면은 3,120명(1,150세대), 한수면은

45) 권희필 편, 2000년 제20회 제천시 통계연보 (제천: 제천시청 기획담당관실, 2000), 53-55.

46) 권희필 편, 제천시 통계 2001 (제천: 제천시청 기획담당관실, 2001), 4.

897명(319세대), 백운면은 4,062명(1,410세대), 송학면은 6,847명(2,289세대), 교동은 24,816명(7,843세대), 중앙동은 6,229명(2,078세대), 명서동은 5,267명(1,817세대), 의림동은 4,701명(1,476세대), 용두동은 14,402명(4,562세대), 동현동은 21,686명(6,753세대), 청전동은 24,645명(7,777세대), 화산동은 10,108명(3,363세대), 영천동은 5,360명(1,859세대)이다.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살에서 9살까지 19,194명(남자 10,147명, 여자 9,047명), 10살에서 19살까지 22,440명(남자 11,582명, 여자 10,858명), 20살에서 29살까지 24,537명(남자 13,156명, 여자 11,381명), 30살에서 39살까지 24,339명(남자 12,475명, 여자 11,864명), 40살에서 49살까지 22,830명(남자 11,662명, 여자 11,168명), 50살에서 59살까지 14,384명(남자 7,031명, 여자 7,353명), 60살에서 69살까지 12,249명(남자 5,605명, 여자 6,644명), 70살에서 79살까지 5,892명(남자 2,204명, 여자 3,688명), 80살에서 89살까지 1,892명(남자 609명, 여자 1,283명), 90살에서 99살까지 181명(남자 38명, 여자 143명), 100살 이상은 12명(남자 2명, 여자 10명)이다.

### 3. 지역사회 산업

제천시의 농가는 7,956세대이며, 농가 인구는 24,671명이다. 시민 10명당 1.7명이 농민이며, 농가는 시 전체 가구의 16.4퍼센트, 가구당 경지 면적은 4,557평이다. 제천시의 사업체 수는 총 9,789개, 종사자는 34,254명이며, 중앙동이 2,175개로 22.2퍼센트, 청전동이 1,208개로 12.3퍼센트, 한수면이 78개로 0.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 수산업은 사업체수가 7개소(0.1퍼센트)이고 26명(0.1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광업은 20개소(0.2퍼센트)이고 200명(0.5퍼센트)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은 669개소(6.8퍼센트)이고 4,574명(13.4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수도는 4개소(0.1퍼센트)이고 341명(0.1퍼센트) 종사하고 있고, 건설업은 279개소(2.9퍼센트)이고 1,388명(4.1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도 소매용품 수리 업은 3,228개소(33.0퍼센트)이고 7,115명(20.8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숙박 음식점 업은 2,333개소(23.8퍼센트)이고 4,908명(14.3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운수 창고 통신업은 659개소(6.7퍼센트)이고 3,948명(11.5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금융 보험업은 109개소(1.1퍼센트) 1,464명(4.3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서

비스업은 109개소(1.1퍼센트)이고 1,464명(4.3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업은 57개소(0.6퍼센트)이고 1,664명(4.9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은 288개소(2.9퍼센트)이고 2,800명(8.2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보건 사회복지사업은 197개소(2.0퍼센트)이고 1,485명(4.3퍼센트) 종사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은 1,579개소(16.1퍼센트)이고 3,270명(9.5퍼센트) 종사하고 있다.

읍면동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양읍은 사업체수가 355개소(3.6퍼센트)이고 종사자 수는 1,739명(5.1퍼센트)이고, 금성면은 112개소(1.1퍼센트)에 633명(1.8퍼센트)이고, 청풍면은 92개소(0.9퍼센트)에 271명(0.8퍼센트)이고, 수산면은 165개소(1.7퍼센트)에 403명(1.2퍼센트)이고, 덕산면은 224개소(2.3퍼센트)에 437명(1.3퍼센트)이고, 한수면은 78개소(0.8퍼센트)에 281명(0.8퍼센트)이고, 백운면은 215개소(2.2퍼센트)에 480명(1.4퍼센트)이고, 송학면은 284개소(2.9퍼센트)에 1,860명(5.4퍼센트)이고, 교동은 770개소(7.9퍼센트)에 3,179명(9.3퍼센트)이고, 중앙동은 2,175개소(22.2퍼센트)에 5,501명(16.1퍼센트)이고, 명서동은 898개소(9.2퍼센트)에 2,671명(7.8퍼센트)이고, 의림동은 590개소(6.0퍼센트)에 1,923명(5.6퍼센트)이고, 용두동은 426개소(4.4퍼센트)에 1,829명(5.3퍼센트)이고, 동현동은 673개소(6.9퍼센트)에 2,291명(6.7퍼센트)이고, 청전동은 1,208개소(12.3퍼센트)에 4,242명(12.4퍼센트)이고, 화산동은 997개소(10.2퍼센트)에 2,949명(8.6퍼센트)이고, 영천동은 527개소(5.4퍼센트)에 3,565명(10.4퍼센트)이다.

주택보급율은 90.4퍼센트이며, 주택종류는 단독주택 23,323호, 아파트 18,261호, 연립주택 2,295호, 주택 총계는 43,879호이다. 도로연장은 중앙고속도로를 포함하여 766.3킬로미터, 도로 포장율은 63.4퍼센트, 자동차 등록은 39,084대이다. 특별히 제천은 철도가 발달하였으며, 중앙선 상하, 태백선, 충북 선을 합하여 연장 67.8킬로미터를 가지고 있다.

#### 4. 지역사회의 문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3개소, 의원 70개소, 치과 병의원 23개소, 한방 병의원 28개소, 보건소 1개소로서 합계 126개소이다. 의료 인력은 의사 129명, 치과 의사 25명, 한의사 34명,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 417명이며, 의사 1인당 인구는 789명

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정신지체아를 위한 '세하의 집', 아동 중증 정신지체아를 위한 '이하의 집', 성인 정신지체아를 위한 '살레시오의 집', 무의탁 영유아를 위한 '제천영아원', 무의탁 노인을 위한 '성보나멘뚜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으며,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장애 3,526명, 시각장애 453명, 청각 언어장애 300명, 정신 지체장애 410명, 기타 270명이며, 총계 4,959명이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는 2,626가구에 5,241명이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 34개,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7개, 전문대학 2개, 대학교 1개, 대학원 3개, 특수학교 1개, 합계 82개교이며, 학생 수는 44,557명, 교직원수는 1,493명, 사무직원수는 359명이다.

#### 5. 지역사회의 영적 상황

제천시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의 종교 단체별 현황은 기독교가 165개소, 성직자 165명, 천주교 8개소, 성직자 16명, 불교 72개소, 성직자 72명, 유교 2개소, 성직자 2명, 원불교 2개소, 성직자 2명, 기타 종교 8개소, 성직자 8명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의 빼어난 계곡과 시내 중심지에는 불교의 사찰이 산재하여 있다. 한수면 송계리 덕주사, 덕산면 월악리 신록사, 수산면 능강리 정방사, 금성면 성내리 무암사, 봉양읍 명암리 백련사, 송학면 시곡리 강천사, 덕산면 신현리 고산사, 남천동 한산사, 하소동 대승사, 남천동 원각사, 천남동 대각사, 청전동 삼정사, 교동 복천사 등이 있으며, 불교의 사자빈신사지석탑, 마애불상, 청풍석조여래입상, 칠층모전석탑, 신록사 삼층석탑이 국가지정 문화재이다. 시내 곳곳에는 계룡 철학관, 지장암 역술원, 동양현대철학복술연구원, 하소리 바윗집 등이 있으며, 천주교의 수녀원, 카톨릭 사회복지관, 베론 성지가 봉양읍 구학리에 있다.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전도관, 구원파, 물몬교, 안식교 등이 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원불교, 향교, 세속적 황금 숭배사상과 무신론 등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종교단체의 2000년 12월 31일 현재 현황을 단체수, 성직자 수, 신도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는 조계종이 단체수가 24개(성직자는 24명)에 신도수는 10,720명이고, 천태종이 8개(성직자는 8명)에 신도수는 1,035명이고, 태고종이 12개(성직자수는 12명)에 신도수는 3,390명이고, 전체 시민의 16.5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는 감리교가

53개(성직자수는 53명)에 신도수가 9,299명이고, 장로교가 50개(성직자수는 50명)에 7,293명이고, 기타가 62개(성직자수는 62명)에 신도수가 5,140명이고, 전체 시민의 14.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천주교는 단체수가 8개(성직자 수는 16명)에 신도수가 10,260명이고, 전체 시민의 6.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는 단체수가 12개(성직자 수는 12명)에 신도수는 1,659명을 차지하고 있다.

상기 상황을 볼 때 제천시는 영적인 대 혼란기를 겪고 있으며, 아직도 복음과 상관없는 시민이 126,576명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때에 먼저 믿는 성도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 제 4 절 새제천교회 현황

새제천교회는 창립부터 제천 시민을 감동시키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소원했다. 이제 본 교회의 현황을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 1. 새제천교회 연혁

새제천교회는 1989년 10월 2일 주문규 집사 가정에서 정태영 목사를 비롯한 14명의 성도가 모여 교회 개척을 결심함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이름을 새하늘교회로 칭하였다. 1989년 10월 3일 제천시 중앙로 2가 48번지 신축빌딩 2층 35평을 예배당으로 계약하고, 1989년 10월 8일 설립예배를 드렸다. 1989년 11월 5일 이진구, 이동진, 김세기 씨가 시무장로로 취임하였고, 1989년 11월 30일 함남노회 제94회 정기노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조직교회로 가입하였다. 1989년 12월 17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정태영 목사를 위임 목사로 만장일치 청빙키로 의결하였고, 1990년 3월 25일 공동의회에서 전규상, 주문규, 박유신 집사를 장립집사로 피택하였다. 1990년 11월 15일 '새하늘소식'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1991년 1월 13일 남전도회 창립예배에서 회장 이동진 장로가 선출되었으며, 1991년 3월 5일 바울 성서대학을 개교하였다.

1991년 9월 12일 제천시 명동 209-5번지로 예배당을 확장 이전하였다. 1992년 1

월 27일 제1회 예수잔치 찬양집회를 개최하였고, 1992년 10월 31일 학생회에서 이웃 돕기 1일 찾집에서 모금한 금액으로 두학동 노인에게 전달하였다. 1993년 1월 24일 공동의회에서 우리교회가 함남노회에서 총북동노회로 옮겨 가입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1993년 2월 14일 사랑의 가랑잎 줍기 운동을 위한 저금통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었고, 1993년 3월 1일 초대 권사 취임예배를 드렸다(신옥순, 박재순, 조춘구). 1993년 4월 12일 총북동노회에 이명 가입하였고, 1993년 5월 25일 제천시 하소동 93-2답 1122㎡를 1억 1천 만원에 구입하였으며, 1993년 10월 10일 성전기공식 순서를 주일 낮예배 시간에 가졌다.

1994년 7월 7일 새성전에 입당하였고, 1994년 1월 2일 공동의회에서 우리교회 이름을 새제천교회로 바꾸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1995년 5월 14일 제1회 새제천 청풍명월 대상 시상식을 가졌고, 1996년 10월 3일 제2대 권사 취임 (이영표, 황분호, 강영주, 김옥순) 및 제2대 집사 장립(한광석, 권순문) 예식을 가졌다.

1997년 10월 13일 총북동노회 제 32회 정기노회를 본 교회에서 개최했고, 1998년 5월 5일 장로장립(박유신), 권사취임(김정숙, 이경우, 정금자), 교육관 입당예배를 가졌다. 1998년 8월 23일 수재의연금 50만원을 기독교신문사에 송금하였고, 1999년 5월 3일에는 본 연구자가 교회의 도움을 받아 미국 풀러신학교 단기 유학을 다녀 왔다. 2000년 8월 9일 동북아시아 땅끝 선교회 김만식 선교사 간증예배를 가졌고, 2000년 4월 10일 새제천교회에서 제37회 총북동노회가 있었으며, 이때 본 연구자가 소속 노회의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00년 7월 15일 '제천크리스천뉴스'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2001년 4월 26일 제직회 구제부에서 단양 은빛마을 사랑의 집을 방문하였다. 2001년 5월 9일 하소동 175-22번지 662 평방미터를 1억 7천 5백만 원에 주차장 터로 매입하였다.

## 2. 교회의 환경

본 교회는 행정구역상 제천시 하소동 93-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발전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본교회의 서북 방향 500 미터 지점에 불교 사찰 대승사가 있으며, 같은 방향 120여 미터 지점에 무당 집이 있다. 교회가 현 위치에 예배당을 신축할 때 불교 신도중심의 반대운동이 대단했으나, 지금은 대단히 우호적이다. 또한 본 교회에

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청구아파트 497세대가 2002년 5월 입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어서 전도사역에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피터 왜그너(C. P. Wagner) 박사는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교회가 이미 성장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 상류계층보다는 일반 대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기 원리에 입각하여 분석할 때 본 교회 지역사회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 3. 교세 현황

본 교회의 교세를 직원, 성도의 신급, 년도별 새신자 등록, 년도별 일반재정 결산 내역, 부동산 소유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교회직원 현황 (2001년 6월 30일 현재)

교역자는 목사 1명, 시무전도사 1명, 교육전도사 1명이다. 시무장로는 3명이고, 안수집사가 2명이다. 권사는 시무권사가 8명이고, 명예권사가 1명이다. 서리집사는 남자가 19명이고, 여자가 39명이다. 구역장은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7명이다. 권찰은 남자가 1명, 여자가 11명이다. 교사는 남자가 9명, 여자가 16명이다. 제직회는 남자가 25명, 여자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성도들의 신급현황

세례교인이 146명(남자 64명, 여자 82명)이고, 학습교인이 7명(남자 4명, 여자 3명)이며, 유아세례교인이 16명(남자 6명, 여자 10명)이고, 원입교인이 112명(남자 48명, 여자 64명)이다. 총 281명(남자 122명, 여자 159명)이다.

#### 다. 년도별 새 가족 등록 현황

1989년에 16명, 1990년에 136명, 1991년에 53명, 1992년에 48명, 1993년에 23명, 1994년에 31명, 1995년에 52명, 1996년에 35명, 1997년에 39명, 1998년에 38명, 1999년에 40명, 2000년에 25명, 2001년 6월 30일 현재 13명이다.



라. 년도별 일반재정 결산내역

1989년에 4,981,530원이고, 1990년에 40,228,740원이고, 1991년에 43,851,837원이고, 1992년에 46,647,418원이고, 1993년에 46,370,834원이고, 1994년에 51,544,377원이고, 1995년에 59,017,995원이고, 1996년에 64,452,725원이고, 1997년에 79,580,839원이고, 1998년에 76,417,060원이고, 1999년에 104,155,297원이고, 2000년에 103,832,761원이고, 2001년 6월 30일 현재 57,174,768원이다. 1997년도부터는 11월 30일에 회계 년도를 끝내기로 결정하였다.

마. 부동산 소유 현황

(1) 토지

1993년 5월 25일에 매입한 대지 606 평방미터(제천시 하소동 93-2)와 2001년 5월 9일에 매입한 662 평방미터(제천시 하소동 175-22)로 이루어져 있다.

(2) 건물

건물은 1층에 예배당과 사무실로 334 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지하층에 기도실과 대피소로 120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2층에 사택으로 102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 제 3 장

### 관계전도의 특성

지금까지 관계전도를 위한 목회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관계전도를 이해하기 위한 관계전도의 개념, 관계전도의 효율성, 신약성경에 나타난 관계전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 제 1 절 관계전도의 개념

##### 1. 1918년 영국 성공회에서의 개념(anglican definition)

교회의 복음적 사역에 관한 연구조사를 위한 영국 성공회에서 대감독 위원회를 통해 기초를 삼아 1918년도에 전도의 개념을 만들었다. 1938년에 영국 성공회에서 만든 전도의 개념을 국제 선교위원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에 보고하여 채택하였다. 1918년 영국 성공회에서 만들어 공포한 전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전도를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며, 그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 드릴 것이며, 또한 그의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sup>47)</sup>

##### 2. 1974년 로잔 계약에서의 개념(lausanne covenant definition)

합동신학교 교수 김명혁 박사는 현대 에큐메니칼 신학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였다고 한다.<sup>48)</sup> 세계교회 협의회

47) 조은태, 전도학 총론 (서울: 타문화권목회연구원, 1995), 133-135.

(world council of churches)가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기우리면서 개인의 구원이 무관심의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 때 여기에 대한 반발로 개인의 영혼구원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보수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로잔대회가 있었는데, 150개의 국가에서 2,4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이 대회에서 선언된 전도의 개념을 요약하면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며, 기쁜 소식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시어 통치하시는 주로서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사죄와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함은 불가피하며,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대화를 경청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전도 그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로 선포하는 것이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의 교회와의 협력, 세상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를 포함한다. 우리는 인간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심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소명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한다.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헐고 불신사회에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전도는 최우선적인 것이다. 목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 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sup>48)</sup>

### 3. 오스카 톰슨의 전도 개념

오스카 톰슨 박사는 그가 저술한 '관계중심 전도'에서 자신의 복음주의적 생활을 통해 자신의 동심원(concentric circles of concern)안에 있는 이웃과 인격적인 인간 관

48) 김명혁, 역사신학 및 선교신학 연구 (서울: 총회 신학대학, 1979), 161.

49) 기독교21세기 운동본부 편,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vol.29, 524-533.

계를 수립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고 훈련받게 하는 전도개념을 관계중심 전도라고 하였다. 인간의 본질 속에는 무엇인가를 원하며, 필요로 하며, 성취하려는 열망이 있다. 이 소원은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relationship)이며, 이 관계 위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계는 기차의 선로요 사랑은 선로 위에 굴러가는 기차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관계를 통하여 움직이는 것이다.<sup>50)</sup>

인간에게 있어서 두 가지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수직적인 관계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수평적인 관계이다. 성도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이다. 성도의 생활 양식은 성도의 신앙인격을 나타내며, 성도의 평범한 생활에서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각 집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음을 알 수 있듯이 메시아를 만났고,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친척, 친구, 사업동료,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요 1:40-42), 빌립은 나다나엘에게(요 1:45),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은 그녀의 마을로(요 4:28-30), 고넬료는 그의 가족에게(행 10:1-48), 빌립보의 간수는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행 16:30-34)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심원 안에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주셨으며, 동심원 안에 있는 관계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주신 것이다.<sup>51)</sup>

#### 4. 죠셉 앨드리히의 전도 개념

죤셉 앨드리히(Joseph C. Aldrich)는 그가 저술한 생활전도(Life-style Evangelism)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제일 요건은 신뢰성이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한다”<sup>52)</sup>고 하였다.

50) W. Oscar Thompson, 관계중심전도, 11.

51) Ibid., 24.

52) Joseph C. Aldrich, 생활전도(Life-style Evangelism), 오정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성도 개인이나 가족 또는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온전함을 추구하고 신뢰할 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전도는 온전하고 흠없이 사는 생활 방식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거듭남을 통하여 영원히 죽어 마땅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고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서 16장 14절에서 네 회개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회개함이 온전함이니라”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는가?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제도를 통하여 나타났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었고, 이스라엘의 성전과 법궤 등을 통하여 나타난 예술적 표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나타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가정과 결혼의 습관과 어린이와 노인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 주는 것이 되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상업윤리와 정치윤리, 복지윤리와 도덕윤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건강한 행복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도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는 성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의로우심, 선, 평화, 공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전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행하여지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활의 일부인 것이다.

##### 5. 레이튼 포드의 전도개념

레이튼 포드(Leighton Ford)가 저술한 관계중심의 개인전도 지침서인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Good News is for Sharing)에서 최고의 전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3)</sup> 복음을 전한

1997), 24.

53) Leighton Ford,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Good News is for Sharing), 이숙희 역 (서울:

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 많고 범죄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 같이 이웃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는 삶이 전도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를 현재 누리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것을 믿는다. 이러한 성도는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인 것을 증거하게”하신 예수의 권세를 믿는다. 예수의 권세를 믿는 자는 그의 권세가 복음 전도의 이유가 된다(마 7:29; 28:18-20, 행 10:42, 고후 4:5).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자신에게 꼭 물어보아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나의 생을 지배하고 있는가? 예수는 진정 나의 주님이신가?”이다. 예수를 자신의 지배자와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도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제자 만드는 사역을 목표로 하며 충성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한 말을 실천하며, 다른 성도를 겸손으로 섬기며 세워줌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웃을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 드리고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 6. 관계전도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의 생활 속에는 가족, 친족,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알고 지내는 이웃, 모르고 지내는 이웃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위한 선물로 주신 인간 관계망<sup>54)</sup>과 크고 작은 그룹들 속에서 성도가 자연스럽게 풍겨내는 사랑의 향기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보여주고 느끼게 함으로써 관계된 이웃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여 제자 되게 하는 사역이 관계전도이다.

관계전도의 개념은 관계중심의 생활 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사역과 이웃을 생활 속에서 감동시키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사역이

조이선교회 출판부, 1997), 8.

54)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22.

포함된다. 이 사역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나타내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선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하신 말씀을 약속 하셨다. 선교신학자 로랜드 알렌 박사(Leighton Ford)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기보다는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sup>55)</sup>라고 하였다.

관계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또한 온 세상에 그분의 권세를 알리실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될 것이다. 관계전도는 성부 하나님의 일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충성스런 제자를 삼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관계전도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 제 2 절 관계전도의 효율성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전도의 이해를 위한 성경적 용어와 관계전도의 개념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자는 계속해서 관계전도의 효율성 다섯 가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1. 좋은 소식을 보여주는 부흥운동

2001년 2월 4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성도 수는 1천 2백 70만 명이며, 목회자는 6만 8천 3백 80명, 전체 교회는 3만 8천 7백 60개로 집계되었다.<sup>56)</sup>

55) Leighton Ford,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22-23.

56) 제천크리스천 뉴스, 2001년 2월 15일자, 1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천시의 성도 수는 전체시민 148,308명 가운데서 21,732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장에서서는 자신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도자의 메시지만 전달하는 정공법 전도가 불패할 수 있다. 불신자들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은 듣기보다 보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국의 도시는 8퍼센트 이상 34퍼센트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졌다.<sup>57)</sup>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어 섬김과 대속의 삶을 사신 것처럼 말씀이 약화된 성숙한 인격적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신뢰 관계와 매력적인 감동을 창출하여 좋은 소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천시는 복음화율이 14.65퍼센트인데 시민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14.65명이 성도인 것이다. 이제 제천시의 가정, 직장, 동교회, 동창회 등의 모든 모임에는 14.65퍼센트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천시는 관계전도의 시대가 개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계전도는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건강회복 운동이며, 교회의 본질 회복을 통한 부흥운동이다.<sup>58)</sup>

## 2.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부흥운동

교회의 품질과 교회의 부패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 건강학은 바람직한 것이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우수하여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함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회건강학을 잘못 이해하여 세상을 향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회보다는 어떠한 실수도 안하면서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목회는 목회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교회는 패배주의에 편승한 자기 방어적인 교회의 건강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야 한다. 세상을 향하여 과감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21세기에 밀려오는 세속화와 종교 다원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관계전도는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

57)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 익산시가 34퍼센트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가 8퍼센트로서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2000년 1월 29일자, 미션투데이, 15면.

58)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25.



는 제자라야 할 수 있다. 제자훈련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역에 강조점을 둔다면 관계전도 훈련은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건강한 전도 사역자로 만들어 가야 한다. 관계전도로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한다면 불신자들과 지속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불신자들처럼 생각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여야 한다.<sup>59)</sup>

자연적 교회 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을 주장하는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 박사는 교회 성장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가 갖추어지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교회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생명체적 잠재력을 풀어놓아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sup>60)</sup>이라고 한다. 관계전도는 자연적 교회성장학에서 지적하는 8가지 요인을 충족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21세기 부흥운동이 틀림없다.

### 3. 불신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아 가는 부흥운동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물질 만능사회,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허영과 사치가 가득한 사회로 부패했으며, 경제 파탄은 정치적 부패에서 왔고, 정치적 부패는 국민의 도덕적 타락에서, 국민의 도덕은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sup>61)</sup>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부패를 방관했고, 위험을 경고하거나 미리 예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패에 한국 교회도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여성연구위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합동교단의 여교역자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항목 중에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공신력을 상실한 이유를 질문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신앙과 실제 행위의 불일치가 69퍼센트, 배타적이고 비관용적인 대인관계가 12퍼센트,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통념 사이의 괴리감이 11퍼센트, 기능적 사회변화의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 부족이 8퍼센트로 나타났다.<sup>62)</sup>

한국교회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이성과 과학 문명으로부터 치명적인 상처

59) Ralph W.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398-399.

60)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38.

61) 하용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교회갱신소식, 1998년 34월호, 4-5.

62) 교갱협여성 연구 위원회, 교회 갱신소식, 1999년 4월호, 57.

를 받고있다. 배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신앙노선, 계급주의 등이 교회를 멍들게 하였고, 지역사회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한경철 목사는 그의 저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에서 “정신사적으로 공허한 이 시대의 허무주의, 쾌락주의, 기계문명의 공해, 모든 불신앙의 사상적 공허를 복음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고 하였다.<sup>63)</sup>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순례의 길을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의 모범을 통해서 관계전도는 언어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을 발견한다. 관계전도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복음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감동시킴으로 복음을 전하는 원리이다.

세상의 불신장벽을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가지셨던 은혜와 진리로 감동시켜서 인격적인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옥한흠 목사가 주장하는 영적 권위의 회복은 “지도자가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예언자적 경고를 하며, 풍랑을 만난 배속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에 몸을 던지는 소명자적 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전하는 영적 지도자여야 한다”고 했다.<sup>64)</sup> 관계전도는 한국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세상에 희망의 빛과 사랑의 광채를 발할 수 있다.

#### 4. 교회의 전도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부흥운동

어느 교회든지 성도의 10퍼센트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10명중 1명만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성도가 1천 2백 7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12만 7천 명이요, 은사를 활용하는 성도는 1만 2천 7백명이라는 것이다. 웨이론 몰(Waylon B. Moore)은 “기독교인의 95퍼센트가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못했다고

63) 한경철,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1), 35.

64) 옥한흠, “영적 권위의 회복”, 교회갱신 소식, 1999년 4월호, 4-14.

지적하면서 또한 99퍼센트의 복음전도자들이 전도한 영혼의 양육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sup>65)</sup>고 말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한국교회에서 127명만이 전도한 영혼을 양육한다는 얘기가. 그러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7천만 민족을 복음화하고 14만 8천 308명의 제천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sup>66)</sup> 1천 2백 70만 명의 성도를 전부 관계전도 대원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면 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복음의 내용을 보기 원하며, 느끼기를 원하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고 느끼도록 감동시키면 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된다(요 1:14).

셸돈 바나우켄(Sheldon Vanauken)은 그의 저서 A Severe Mercy에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최고의 주장은 성도들이 기쁨과 확신과 온전함에 거하는 것이요, 그러나 기독교를 반대하고 복음을 파괴하는 증거도 성도들이 기쁨을 잃고 우울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교만하며, 마음이 좁아져서 사단에게 억눌려 있는 성도라고 하였다.<sup>67)</sup> 관계전도는 성도가 기쁨과 확신, 온전함,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 사랑의 편지로 가득 차서 빛을 발하며 영광스런 열매를 맺는 전도폭발 사역이다. 그러므로 관계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직과 진실의 향기를 이웃에게 보여주므로 이웃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사역이므로 교회의 성도 100퍼센트를 전도 자원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운동이다.

##### 5. 성도의 영성을 회복시켜서 교회가 부흥하는 운동

사탄의 21세기형 전략은 대중문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중독 시키고 마비시켜서 대중문화의 나일강에 빠트리고 있으며, 말세의 현상이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 사랑에 빠져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탄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대중문화의 특징이 6S(screen, sex, sports, speed, stress, success)를 통하여 목적과 가치의 상실, 공허와 권태감, 소외와 외로움, 우울증과 슬픔, 깨어진 인간관계, 자신을 무용지물로 여기는 자학하는 감정, 기본질서에 대한 저

65) James Kennedy, 현대전도,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2), 198.

66) 패러다임(paradigm)이란? 사물을 보는 생각, 방식, 관점, 인식의 틀, 체질, 구조, 신념 등을 말한다. 사람의 몸은 바뀌지 않지만 의상 패션은 계절마다, 시대마다 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자.

67) Sheldon Vananken, A Severe Mercy (New York: Harper and Row, 1977), 85.

항과 폭력 등으로 사람들을 절망케 함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랑해야 할 이웃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송배하는 우를 범하게 한다.<sup>68)</sup> 아울러 사탄은 사람들을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전략에 빠진 사람들은 영성이 식어져서 이웃의 영혼과 사회를 구원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까지도 세속적 가치관과 함께 물량적 성공을 추구하는 목회를 하고 있으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전도 불감증 또는 전도 무기력 질병에 감염되어 영적 비만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소멸된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영성은 경건 서적을 읽거나 사람들의 지식적인 기술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 지성소 예수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다. 관계전도는 성도로 하여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은혜와 진리가 총만한 가운데 능력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성도가 되게 한다(요 12:24, 막 8:34, 고전 15:31).

관계전도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옮겨진 새생명의 권능을 성도가 갖게 하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천국 열쇠를 소유케 함으로 성도의 영성을 회복케 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운동이다.<sup>69)</sup>

### 제 3절 신약 성경에 나타난 관계전도

이제 성경에 나타난 관계전도 개념을 살펴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자신이 복음 전도자요, 자신이 복음의 중심이시며, 복음의 주체가 되셨다. 예수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적용시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는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사람으로서 신비한

68)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57-77.

69) 민경설, 전도의 다이나믹 파워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9), 37-38.

인격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성취하신 모든 전도자의 머리요, 완전한 전도자이다.<sup>70)</sup> 여기서는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관계전도,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나타난 사도와 평신도의 관계전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전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역하신 전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나시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며 “식사할 겨를도 없이”(막 3:20) 복음을 전하셨다. 제자들은 아직 때가 멀었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고 하시며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선포하셨다.

버디 멀프리(Buddy Murphrey)는 그의 책 그물을 당겨라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모든 시간을 밖에서 일하시며 보내셨고, 영혼구원은 예수의 가장 귀한 일이었으며, 이 일이 또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일이 되어야 한다”<sup>71)</sup>고 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이 된 것을 말씀하셨다. 세상의 빛인 성도들이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야 할 책임을 강조하신다.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 질 때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관계되시는 제자들에게 생활의 모범을 통하여 모든 훈련을 하셨고, 생활의 모범을 보이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날에 전도사역을 위해서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그날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고(막 1:35),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70) 오장열, 교회 성장과 개인전도 (서울: 도서출판 양문문고, 1992), 73-74.

71) Buddy Murphrey, 그물을 당겨라, 정학봉 역 (서울: 동서남북, 1992), 27.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하시며, 생활의 관계전도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는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그는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전도에서 관계전도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예수께서는 물 좀 달라고 하는 부탁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시켰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열어 전도를 시도했다.<sup>72)</sup> 예수는 당시 유대로부터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서 윤리적인 비난과 유대 남성에게 인습으로 거부되던 이 여인을 만났다. 세상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무시했으나 예수는 이 여인을 인격체로 받아 주셨고, 지극한 사랑의 인격으로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는 이 여인의 환경 가운데서 접하고 있는 물이란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가셨고, 자신의 인격을 주셨고, 상대방의 인격을 세워 주셨다.<sup>73)</sup> 둘째, 기회를 이용하여 그 여인에게 접근하여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 4:10). 셋째, 대답의 가치가 있는 질문만 선택하였고 나머지 질문은 무시하였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할 곳이 그리스 산인지 예루살렘인지를 질문했지만 예수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화를 이끄셨다.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대화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일에 최고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sup>74)</sup> 넷째, 예수께서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요 4:16)고 하였고, 이 여인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요 4:17)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요4:18)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감추어진 사생활을 그의 면전에서 들어 내셨으나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다. 육신의 관심사에서 영적인 문제로 주제를 연결 시키셨다. 다섯째,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속마음을 움직여 구원을 원하는 고백을 하게 하였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였으며,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여자가 가로

72) Walter A. Hendrickson,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네베게이트, 1981), 55.

73) 이영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 하였을까? (서울: 크래도 미션, 2000), 68-77.

74) 조은태, 전도학총론, 233-238.

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하였다. 이 때에 예수께서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요 4:26)고 하셨다. 여섯째,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 4:29) 하며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언하였다. 일곱째, 이 여인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요 4:41, 42)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관계전도가 예수로부터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믿게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웃과 인간관계를 맺으심으로 접촉점을 찾아서 전도를 하셨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도를 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웃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가셨다. 마태 프린스(Matthew Prince)에 의하면 예수는 공생애 기간동안에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가르치고, 훈련하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사역 등을 위해서 132번 접촉을 하셨는데 이 중 10번은 회당과 성전에서, 나머지 122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서 만났다.<sup>75)</sup> 예수께서는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가서서 관계를 형성하셨다.

예수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도 찾아가셔서 그의 집에 머무셨다(눅 19:5). 삭개오가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며, 이 일로 인해 비난도 받으셨으나 개의치 않으시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도 기탄 없이 교제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sup>76)</sup> 둘째, 예수께서는 한 개인에게 연관된 관계망을 통해서도 전도하셨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께서 거라사의 광인에게 붙어있던 군대귀신을 쫓아내신 기사가 있다. 이 때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 속에게 고하라”(막 5:19) 하셨으며, 이 사람은 이 사실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었다.

75) Matthew Prince, Winning Through Car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89.

76) 박윤선, 공관복음 성경주석 (서울: 영음사, 1973), 682.

이 사건은 예수께서 치료받은 사람의 가족, 친척, 친분관계의 관계망을 통한 관계전도의 방법을 지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요 3: 1-15),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간음한 여인(요 8:1-11), 주님의 교훈에 무관심했던 젊은 부자(눅 19:16-22),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부르신 세리 삭개오(눅 19:1-10) 등을 전도하실 때 그들의 필요에 먼저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필요를 채우시며,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자연스런 관계를 맺음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으셨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며, 무조건 베풀며,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모범을 보이고 감동시켜서 구원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마 5:38-48). 예수께서는 또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 6:3-4)하시면서, 겸손한 관계 속에 이웃을 감동시켜서 구원하고 양육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 2. 사도들의 관계전도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를 좇아서 그의 거처까지 가서 함께 거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안드레는 자신의 친 형제인 베드로에게 관계전도를 시도했고, 사도 중에 사도라 할 수 있는 대사도의 길이 시몬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좇으라” 하셔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좇았다. 빌립은 즉시 친구 나dana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였다. 결국 친구 나dana엘을 예수께로 인도하였고, 나dana엘은 예수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빌립은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동네에 사는 친구 나dana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관계전도의 선구자가 되었다.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에서는 안드레가 전도한 것을 응용하여 안드레 카드와 안드레 작전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안드레 카드는 전도대회가 있는 도시에 준비팀이 6개월 전쯤 입성하여 성도들에게 카드 한 장씩을 주면서 “이 카드에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집회하는 교회로 모셔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때의 카드를 안드레 카드라고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빌리그래함 전도대에서는 안드레 작전이라고 한다.<sup>77)</sup>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하는 동안 공적으로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사적으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행 19:8-20).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관계를 강화하며 복음을 전했고, 교제를 통해서 양육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도착하여 먼저 회당을 찾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으며, 그 다음에야 이방인들을 만나고 방문했다(행 13:5; 17:1,10; 18:4). 회당은 복음의 접착점으로 좋았고, 동족인 유대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으나 그는 유대인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으로 믿고, 모세의 본을 따라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멸망을 감수하겠다고 하였다(롬 9:3, 출 32:32).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나의 친척이라고 하였으며, 로마서 16장 11절에서도 헤로디온을 내 친척이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선교를 사역할 때 친척을 중심으로 관계전도 사역에 의존하여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세든 집을 복음전도의 장소로 활용하되 유대인 지도자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형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sup>78)</sup>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현장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이 있으면 이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루디아의 집, 빌립보 간수의 집, 데살로니가 야

77) 이동원, 열두문 열두돌 (서울: 나침반사, 1987), 301-302.

78) 행 28:30-3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손의 집, 고린도 회당 맞은 편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 고린도 스테바나의 집 등이 가정교회로서 관계전도를 맺어 가는 장소로 사용되었다(행 16:15; 32-34; 17:5; 18:7; 고전 16:15).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롬 12:8)”하였으며, 율법의 완성은 사랑(롬 13:10)이기 때문에 사랑과 함께 평화로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함으로 효과적인 관계전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도 바울은 또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19)이라고 하였다. 죽어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신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불신자의 종이 되기까지 겸손으로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 관계전도를 이루겠다는 사도 바울의 충성된 모습이다.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 출장부의 비겁함과 소심함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권능이 충만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동족에게 동족의 애정과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했다(마 26:69-75; 행 2:1-4; 14-42).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유대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선포하면서 동족에게 관계전도를 실천하였다(행 4:12).

### 3. 평신도의 관계전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렘 20:9)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하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 의사 누가는 알고 지내는 관계가 있는 데오빌로<sup>79)</sup>에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 합계 52장의 글을 써서 문서를 통한 관계전도를 하였다.

누가는 바울의 사역 초기에 바나바와 함께 일했던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 개종자였다(행 16:10-17; 20:6; 21:17; 27:1, 몬 1:24, 딤후 4:14). 누가는 디도의 형제(고후 8:16-18; 12:18)였으며,<sup>80)</sup>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하여 그와 동행하였

79) 데오빌로는 눅 1:3과 행 1:1에 기록된 동일인이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이다. 그의 이름은 ‘데오’(Theo- 하나님을 의미함)와 ‘빌로’(philus -친구를 의미함)가 합해진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행 16:11-40). 제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으며(행 20:5-21), 바울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누가가 함께 있음을 언급하였다(골 4:14, 몬 1:24, 딤후 4:11). 누가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고동락하며 동역한 신실한 성도였으며, 자신이 소유한 의사로서의 재능으로 전도 사역에 봉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누가의 희생적인 봉사정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헌신적 희생을 강조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눅 6:34-35; 16:10-13, 행 2:44-45; 4:32-5:10). 헬라인으로서의 냉철한 지성과 교양, 의사로서의 덕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하여 일차적으로 자신과 같은 문화권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눅 1:1-4, 행 1:1). 누가는 로마제국의 통치하에서 헬라 문화(greek culture)에 젖어 살던 여러 지역의 비유태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gospel of christ)을 증거하는 관계전도를 위하여 붓을 들었던 것이다.<sup>81)</sup>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타난 스테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칭찬 받는 자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행 6:3-10; 7:55).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테반은 평신도의 신분이었으나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리 있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과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성도였다(행 6:5-15; 7장; 8:1-3; 11:19; 20:20).<sup>82)</sup> 스테반 집사는 자신이 맡은바 책임이었던 구제사업에 충성을 다하며, 이적을 통하여 복음전파에도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격려를 받는 가운데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명예를 스테반에게 안겨 주셨다. 특별히 스테반 집사는 거짓 증인을 앞세워 자신을 구속하고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는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하였다(행 6:9-15; 7:54-60, 롬 7:15-25, 고후 4장, 갈 1:10-24; 3장, 엡 4장). 스테반 집사는 동네사람들 특별히 돌로 치는 자들의 벗은 옷을 맡아 지켜주던 사울이라 하는 청년에게 순교로

80) 디도와 함께 한 형제는 의사 누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81)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누가복음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2), 16.

82) 스테반은 ‘면류관’이라는 의미이다.

관계전도를 하였으며, 사울은 훗날 사도 바울로서 복음의 큰 발자취를 남기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을 보면 초대 교회의 평신도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강론하되,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길을 가던 중 세례를 베풀었다. 이 사건에서 빌립 집사는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전도 사역을 하였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시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심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 치료를 받았다. “두루 통지하여” 데리고 와서 은혜를 받게 한 것은 당시 평신도들의 관계망을 통한 전도사역이었다.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일가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복음을 듣고 성령과 세례를 받았다. 이 일은 가족과 친구의 관계망을 통한 관계전도의 사례이다(행 10:1-48).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가정을 통한 관계전도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들 부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블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었다(행 18:24-28). 성령으로 거듭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블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설교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 단지 지식에 의존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아블로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그리스도의 오심,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성령세례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었다. 아블로는 이들 부부의 설명에 대하여 겸손함으로 경청하였고 분명하게 깨달았다.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블로를 장려하는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권면하였다. 이들은 관계망을 이용한 관계전도 사역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sup>83)</sup>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구브로 섬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행 13:4-5).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다(행 4:36). 이 사실은 바나바의 전도 사역이 고향의 인간 관계망을 따라서 관계전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중 많은 수가 구브로 출신이었다(행 11:19-21). 이러한 요인이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첫 선교 대상지로 구브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작용했

83)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사도행전, 418.

던 것으로 보인다.<sup>84)</sup>

성경의 또 다른 기록에 보면 네 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왔다. 많은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 이 사건도 이웃의 관계망을 통하여 보여주는 관계전도의 사역이다(막 2:3-12).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기가 없어도 진리를 가지고, 깃발은 없어도 사랑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과 친근한 태도로 예수의 복음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일편단심, 초지일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전달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통하여 복음은 빠르게 확산되었다.<sup>85)</sup> 이제 다음 장에서는 관계전도의 전략을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자 한다.

84)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사도행전, 301.

85) J. Herbert Kane, 기독교 세계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8), 34.

## 제 4 장 관계전도의 전략

전략이란 말은 군사적 술어로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한 준비, 계획, 조직, 전술, 방법 등을 의미하는 용어이다.<sup>86)</sup> 이제 본 연구자는 관계전도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바울의 전도전략과 문화, 관계전도와 불신자 문화 이해, 관계전도와 교회의 사회봉사, 관계전도와 성도의 본질 회복을 연구하고자 한다.

### 제 1 절 바울의 전도전략과 문화

제임스 윌슨(James I. Wilson)은 그의 책 전도전략의 원리에서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표(objective), 공격(offensive), 집중(concentration), 기동성(mobility), 경계(security), 기습(surprise), 협조(cooperation), 보급(communication), 병력의 절약(economy of force), 추격(pursuit), 순종(obedience)의 원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sup>87)</sup>

관계전도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지속적인 자기비판과 점검을 통해서 교회의 목표, 목적,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미래로 전진하고 발전케 하는 좋은 방법이다. 모든 교회 활동은 채택된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전술적인 수단을 채택함으로써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략은 중요한 방해물을 지적해 내며, 방해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가능한 모

86) 정문호, 성경적 교회성장학, 123.

87) James I. Wilson, 전도전략원리 (The Principles of War),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01-102.

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성취의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88)

피터 왜그너 박사는 그의 저서 교회 성장 전략에서 전략 수립은 신성한 실용주의로서 첫째,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효과측량에 도움이 된다. 셋째, 중도수정을 가능케 한다. 넷째, 전도 팀을 단결시킨다. 다섯째, 책임감을 부여한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89)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으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전도 사역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전 9:19).

#### 1. 문화에 민감한 바울의 관계전도

바울이 본을 보여준 사회와 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같은 유연성이 그리스도인의 사회 속에서도 권장되어야 한다. 성도가 문화에 민감하려면 다음의 관계전도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90) 첫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양심의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은 유대인을 만났고, 내일은 이방인을 만났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가 다를 때에 바울은 포용력과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였다. 바울의 생각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잃어 버렸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으며,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었다(엡 2:19-22).

둘째, 바울은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의견과 관심 등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웃의 감정과 관심을 자기의 것으로

88) Waldo J. Waring, 현대 교회성장의 새로운 전략 (Vision and Strategy for Church Growth), 정사무엘 역 (서울: 예찬사, 1986), 89-91.

89) C. Peter Wagner, 교회성장전략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명성훈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31-34.

90) Joseph C. Aldrich, 생활전도, 75-79.

삼았고,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복음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었다. 바울은 유모가 아기를 양육하듯이 하였고,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듯이 이웃을 섬기었다(살전 2:6-12).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가 비슷한 문화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더 쉽고 효과적인 양육이 가능하다.

셋째, 바울의 전 생애는 자기부인과 섬김의 모범이었다. 바울은 더 많은 이웃을 구원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권리를 포기했으며(고전 9:4), 아내와 함께 다니는 결혼의 권리를 포기했고(고전 9:5), 일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다(고전 9:6). 고전 9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였다. 바울은 문화에 민감한 관계전도 전략을 가지고 이웃을 섬겼으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전도자였다.

## 2. 전도여행을 통한 관계전도

사도 바울은 순교의 각오와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모범적이고 위대한 전도자였으며,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주님의 그릇이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 죽음을 지켜보았으며,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변화되었다(행 7:58-8:1; 9:1-19). 사도 바울은 즉시 다메섹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그를 담아서 탈출하게 하였다(행 9:20-25).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갈 1:17). 다메섹으로 돌아온 그는 삼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체류하였다(갈 1:18; 행 9:26-29).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의 전도사역이 이방인에게 행하여 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환상을 보았다(행 22:17-21). 이와 같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하였다.<sup>91)</sup> 이어서 2차 전도여행을 하였는데 실라와 동행

91) 행 13:1-14:28, 기간은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이며, 여행 거리는 약 2,240킬로미터였다.



하였고, 중간에 디모데와 누가를 만나서 동행하였다. 2차 전도여행의 초기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에 관계를 맺었던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니며 교회를 굳게 하는 관계전도를 실천하였다.<sup>92)</sup>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얼마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고 하였다.<sup>93)</sup>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에서도 1차와 2차 전도여행에서 관계 맺여진 성도와 교회를 찾아가서 믿음을 굳게 하였으며,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는 관계전도 사역을 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총독 베스도의 명령으로 로마 여행을 하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았다. 특별히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유할 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극진히 영접하였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였다.<sup>94)</sup>

### 3. 문서를 통한 관계전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존재하였다.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전달하였고,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도 음성에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소리였다.<sup>95)</sup>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시는 성육신의 방법으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 후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발송하셨다. 이는 우리도 그의 본을 받아 우리 자신을 메시지 그 자체로 만들 것을 권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96)</sup>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교회

92) 행 15:40-18:22, 기간은 주후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이며, 여행거리는 약 4,500 - 5,500킬로미터이었다. 2차 전도여행에서 유럽지역인 빌립보, 보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지역을 전도하였다.

93) 행 18:23-21:19, 기간은 주후 53년부터 58년까지 약 6년이며, 거리는 약 5,000 - 5,600킬로미터이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강론하였으며,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전도여행 결과를 보고하였다.

94) 행 27:1-28:31, 로마여행 기간은 주후 59년부터 61년까지 약 3년이었으며, 여행 거리는 약 3,800-4,000킬로미터이었다. 사도 바울은 시돈에서 친구들의 대접을 받기도 하였으며,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난 후 멜리데 섬에 도착한 후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 일이 없었고, 보블리오의 부친을 열병과 이질에서 안수기도로 치료하였으며 전도하였다.

95) 정찬덕, 밀레니엄 시대의 파워 전도 (서울: 베드로서원, 1999), 54-55.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였다.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적어도 13권이며, 이 서신은 기독교 근본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으며, 사복음서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sup>97)</sup>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여행을 통하여 관계되어진 빌립보교회와 갈라디아교회, 디모데, 디도, 빌레몬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하여 관계 전도와 양육을 위해 힘썼다. 1세기 중엽이후 바울 서신이 기록되고 순회되고 사본이 만들어 졌을 때, 특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바울 서신은 이들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해답을 주었으며, 386년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바울 이후 최대의 신학자가 됨으로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세우게 되었다.<sup>98)</sup> 아울러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종교 개혁의 거장이 되었고, 칼빈도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다.

바울 서신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성도로서 사도 바울과 형제로 관계 맺어진 성도들에게 결혼식 때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을 읽고 설교하며, 장례식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강론을 듣고, 성찬식 때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강론하고 토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주제로 삼는다.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외치며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한다. 고린도전서의 대부분은 고린도에 있는 그의 친구로부터 온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알려져 있다.<sup>99)</sup> 이

96) 박근영, 정보화시대의 선교전략에 대한 고찰, 제 4회 정보화사회 미래목회세미나 자료집 (서울: 미래사회 교회연구소, 1996), 46.

97) 신성종, 신약총론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7), 151, 히브리서신이 바울서신에 포함된다면 14권이 된다.

98) Ibid., 151-152.

99) Everett F. Harrison, 신약개론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정성구 역 (서울:

어서 관계전도와 불신자 문화이해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제 2 절 관계전도와 불신자 문화이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긴장의 문제이다. 불신자는 생각하기를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가치, 언어, 습관이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관계 맺기를 꺼려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신자 문화의 심리학과 사회학을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sup>100)</sup> 불신자들과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위로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회가 그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좋은 관계가 맺어짐으로 전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1. 관계전도를 위한 동일시 원리

현대 문화에 있어서 죄가 인간과 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인간은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으며,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감으로 영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다. 생명의 빛이 인간에게서 사라지고 어둠에서 신음하게 되었고, 문화는 그 참된 목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망각하게 되었다.<sup>101)</sup>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의미에서 무신론적일 뿐만 아니라 미워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윤리적으로 부패하였다. 칼빈이 보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상실하였으며, 창조세계에 대한 진리도 아주 희미하게 근시적 의미로만 알 뿐이다. 인간은 마귀의 거짓을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이비한 제사장이 되었다.<sup>102)</sup>

세종문화사, 1973), 258-260.

100) Joseph C. Aldrich, 생활전도, 70-71.

101) Henry R.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The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서울: 영음사, 1972), 77-78.

102) Ibid., 81.

이와 같이 인간과 불신자의 문화가 부패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성육신 하시어 인간을 찾아 오셨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는 다른 사람과 동일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는 매우 구조적이었다. 문등병자는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여자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앓수르인과의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 생활 관습과 문화의 주류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에게 찾아 가셔서 문등병자를 고치시고,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으며,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오히려 극진히 존중하시고 섬기셨다(마 8:1-4; 막 7:31-37; 요 4:1-38; 8:3-11). 예수께서는 범직한 사람들을 대하셨을 때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셨고, 판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셨다. 예수께서는 죄를 미워함과 동시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 하실 만한 모든 가능성을 보셨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 성도가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기에 충분한 모든 이유를 갖게 된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동일시 원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삶과 그가 느끼는 감정 안으로 조건 없이 들어간다는 것이다.<sup>103)</sup> 오늘날 새제천교회의 교인들은 불신자들과 분리되어 있다. 교인과 불신자의 관계 단절은 전도의 종말을 예고한다. 이는 새제천교회의 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sup>104)</sup> 이제 새제천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를 본 받아 불신자의 세계로 가까이 다가가야 하며, 동일한 자리에서 그들의 희로애락에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셔서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하셨으나 분리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한 바울의 주장이 왜곡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103) Floyd McClung Jr., 친구관계를 통한 효과적인 전도 (Effective Evangelism), 예수 전도단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98), 16-21.

104)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79.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 전서 5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였다. 상기 성경은 현저히 드러난 범과자들을 고립시켜서 회개하기까지 부끄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일반 사회생활에서 이웃과의 절교는 불가능한 일이며(고전 5:10), 성경이 그런 절교를 장려하지도 않는다.<sup>105)</sup>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음행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지, 불신자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인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 주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셨다(요 17:15). 구원받은 성도는 봉사와 전도를 위해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요 17:18).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위대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에 해당하는 라틴어는 폰티펙스(Pontifex)인데 ‘교량 설치자’라는 뜻이다. 예수는 죽으심으로 교량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sup>106)</sup> 예수는 친히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성도를 교량 건축자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보내신다.<sup>107)</sup>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진실하고 열린 사랑으로 불신자를 사랑하고 끌어안으며, 세상의 소금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 한다.

## 2. 관계전도를 위한 기독교 대중문화 창출의 필요성

문화란 학습된 삶의 양식이며, 인간의 인격적인 활동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화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다. 둘째,

105) 박윤선, 성경주석 고린도후서 (서울: 영음사, 1973), 77.

106) 벵전 3:18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07) Leighton Ford,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151.

문화는 인간의 가치에 따른 정신 활동이다. 셋째, 문화는 특수한 집단, 민족, 지역, 국가 등과 관계된 삶의 양식을 통해서 사회적인 특성을 갖는다. 다섯째, 문화는 고유성과 시대성을 갖는다.<sup>108)</sup>

그러면 대중 문화란 무엇인가? 대중 문화는 학습된 삶의 양식이다. 여기서 대중이란 대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로서 사회적 지위, 계급, 직업, 학력, 재산 등의 사회적 장벽을 초월해서 구성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중사회는 대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그 동향을 좌우하는 사회 형태이며, 대중문화는 대중이 주도하는 문화로서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문화이다. 대중문화의 특성은 국경을 넘어 세계화되어 가고 있으며, 컴퓨터와 결합되어 기계적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맞아 과거의 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sup>109)</sup>

이상만 목사는 대중문화가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하였으며, 전도의 영성을 마비시키고, 영적 탈진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는 대중 문화의 주된 내용물이거나 부산물을 여섯 개로 분류했는데 스크린(screen), 성(sex), 스포츠(sports), 속도(speed), 스트레스(stress), 성공(success)이라고 했다.<sup>110)</sup> 대중문화는 대중에게 목적과 가치의 상실, 공허감, 소외감, 우정과 친밀함의 결핍, 깨어진 인간관계, 자신을 자학하는 감정 등의 절망과 갈등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을 이 절망과 갈등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치료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방법은 기독교 대중문화를 창출함으로 대중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여 희망과 평화를 주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는 이타적이고 평화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에 불신자 문화는 이와는 반대로 호전적이고 탐욕적이다.<sup>111)</sup>

기독교 대중문화의 성경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창조 원리상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또는 영

108) 임성빈외, 현대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39-40.

109) Ibid., 41-45.

110)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 폭발, 60-61.

111) Christopher Dawson, 기독교 문화와 현대 문명 (The Historic Reality of Christian Culture),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9), 10.

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지, 정, 의를 갖춘 인격체로서의 신분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만이 영과 육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인간만이 온 우주의 피조계에 대한 대표권과 통치권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우주 위임이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우주를 마음껏 향유하고 정복할 권리와 우주를 잘 개발하고 가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를 갖게 되었다. 우주 위임을 받은 인간은 정치, 경제, 예술,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지, 정, 의를 활용하여 문화를 창출하며 발전시켜 왔는데 이것을 인간의 문화적 사명이라고 한다.<sup>112)</sup>

둘째,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하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전도의 교구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 대중문화를 창출하여 대중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

셋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세상에서 기독교 대중문화를 창출하여야 하며, 이 문화 속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우리 성도가 기독교 대중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요, 절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명령임을 밝히고 있다.

넷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육신의 문화를 창출하심으로써 기독교 대중문화를 직접 실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받아야 하는 우리 성도는 기독교 대중문화 창

112)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1), 324.

출을 명령받은 것이다.

다섯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죽어서 구원하는 사역과 함께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실천해야만 하는 문화적 사명이다.<sup>113)</sup>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세상 가운데서 성육신 되는 현실화의 과정을 통하여 이웃이 더불어 살아야 하며, 이웃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섬기는 사랑의 가치가 수용되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기독교 대중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기독교 대중문화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따뜻한 감성과 부드러운 심성,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료하는 생명 존중의 문화, 세상을 기쁨이 넘치며 밝고 희망 차게 하는 문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문화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관계전도를 위한 기독교 대중문화에는 어떠한 사역이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 3. 관계전도를 위한 기독교 대중문화의 사역

전도를 통한 복음화의 지상목표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닌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로서의 세상을 되찾는 것이다.<sup>114)</sup>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며, 구원받은 자의 수를 늘려 가는 것이다. 관계전도를 위한 기독교 대중문화의 사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지역사회 정보 연구원

한국교회 부흥이 1990년도 이후 정체되어 가는 치명적인 원인은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세상을 문화명령을 수행

113) 임성빈 편,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45-46.

114) 맹명환, “대중 매체 속의 교회 이미지 마케팅”, 크리스천 뉴스워크, 2001년 10월 20일, 5.



하여야 하는 사역의 장으로 여기지 않고 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었고, 그 영향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sup>115)</sup> 지역사회 정보연구원은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기독교 문화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임무를 띠고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지역사회에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임무이고, 둘째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필요에 따른 효과적 봉사를 하기 위한 임무이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내의 의사, 통장, 반장 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함은 물론이요, 지역사회의 시청, 동사무소,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우체국, 금융기관, 농협, 산림조합, 언론기관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 나. 가정문화 회복운동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며, 가정은 모든 인간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가정은 성도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장소이다”<sup>116)</sup>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상의 낙원이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가정이 지역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함께 공유하였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sup>117)</sup>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가정이 모든 생활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sup>118)</sup>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을 살펴보면 핵가족 시대의 생활 양식과 자식 없는 부부생활이 늘어나고 있다. 선진 공업국에서는 동성애에 의한 결혼, 계약결혼, 가족연합, 생활공동체, 노인만의 공동생활, 소수 인종간 모여지는 민족 집단내의 결혼 등이 번지고 있다. 캘람, 앤스밍거, 터너 등 세명의 정신병 의사가 시카고의 흑인 빈민가에서 가족 형태를 조사해 보았더니 86종류가 되었다고까지 하였다.<sup>119)</sup>

115) 옥한흠 외, I Q 목회에서 E Q 목회로의 전환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7), 17.

116)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교리 9권 (서울: 성서교재(주), 1996), 38.

117) Gene A. Getz, 가정은 작은 교회며, 교회는 큰 가정이다 (The Measure of a Family), 정광욱 역 (서울: 도서출판 만나, 1992), 43.

118) 양은순,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49.

119) Elbin Toffler,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홍갑순 역 (서울: 도서출판 만나, 1997),

제3의 물결 가정사회는 큰 혼란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며, 성경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정문화 회복운동이 요청되고 있다. 새제천교회는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모든 아버지들을 경건한 남성으로, 가정의 목자로, 교회와 세상의 거룩한 지도자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자 한다.<sup>120)</sup> 아울러 부부가 동반자의 평등한 사랑에 근거하여 품위 있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힘쓰고자 한다.<sup>121)</sup>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식은 것이 가정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sup>122)</sup> 그러므로 새제천교회에서는 말씀운동과 성령운동으로 가정문화 회복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다. 기독교 문화원 운영

기독교 문화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지역 사회 운데 임재하는 사역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관계전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찬양과 연극 영화 공연장, 사회 평생 교육원, 신문사, 독서실, 예배장, 기독교 조각공원, 생활 체육관을 운영하며, 술 흡연 마약 예방운동,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역, 영상 및 컴퓨터 문화 연구회, 유기 농법을 통한 먹거리 운동, 자연 환경 보호운동 사역 등을 실천하고자 한다.

### 제 3절 관계전도를 위한 사회봉사

이어서 관계전도를 위한 사회봉사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새제천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육신(成肉身)의 개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아픔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교회로서 회개와 구원을 증거하는 사역이어야 한다. 향후 사역은 '세상의 선교와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 흠뻑이는 교회'<sup>123)</sup>로서 어두운

215.

120) 서경남 편,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서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 2001), 9-145.

121) 맹용길, 현대인과 윤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114.

122) 김점옥, 차세대 한국교회의 모델 (서울: 기독교문사, 2000), 132.

123) 정일웅 편,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전망과 과제 (서울: 총신대학 부설 한국교회 문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며, 구원과 전도의 대상임을 확신하는 목회이다. 이와 같이 풀어지는 교회로서의 사역은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됨으로써 실현이 가능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써 관계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 1. 성경 속에 나타난 사회봉사와 관계전도

구약 룻기 2장 15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이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였으며, 역대하 28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를 치료하였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치료하였으며,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도 파선 당했던 바울과 그 일행을 멜리데섬 토인들이 불을 피워 친절하게 영접하였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自願)하여 이웃을 섬기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막 10:45)고 하였다.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명이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것을 주었고, 여러 가지 병자를 어루만져 고쳐 준 것은 모두가 봉사정신에 근거한 것이다.<sup>124)</sup>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고 하였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회봉사는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기에 사도행전 6장에서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사회봉사를 일곱 집사에게 전부 맡기리라고 했을 때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하여 안수한 사건이 있다(행 6:1-6).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제 연구소, 1991), 111.

124) 조선출 외 편,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419.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하였다. 이순한 목사는 사도행전 강해에서 역사상 최초의 집사 임직의 결과는 너무나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였다.<sup>125)</sup>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후에 고국에 돌아온 제사장의 수가 4천 289명이라고 하였다(스 2:36-39). 오순절 이후에는 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장본인들이었다. 이들이 사회봉사를 통한 관계전도에 힘입어 개종하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 손봉호 박사는 교회직분 가운데 제일 먼저 임명된 사람은 집사이며, 이들은 교회가 사회봉사로 시작한 구제사역을 맡았으며,<sup>126)</sup> 홀트 아동복지회 회장 김근조 박사는 크리스천과 사회봉사의 연결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sup>127)</sup>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2. 한국교회 초기의 사회봉사와 관계전도

사회봉사와 관련한 한국의 특징은 사회봉사가 복음선교보다 더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 선교의 독특함을 나타낸다. 한국에 들어와 체재하면서 일한 최초 선교사는 미국인으로서 북미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1884년 9월 2일에 입국한 호레이스 알렌(Horace N. Allen - 安蓮)이라는 의사였다.<sup>128)</sup> 한국에 처음 입국한 알렌에게 고종이 그의 신분을 물었을 때 그는 의사라고 공언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해 12월 4일에 발생했던 갑신정변 곧 우정국 사건 때 민영익이 큰 부상을 입어 위독하게 되었을 때 알렌이 탁월한 서양 의술로 완쾌시킨다. 이 사건이 알렌에게는 왕궁으로의 접근과 병원의 설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교사 입국에 대한 문호개방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sup>129)</sup> 민영익의 치료사건으로 알렌은 1885년 2월 25일에 광혜원이라는 병원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한다는 조건으로 선교사 헤론, 언더우드, 스크랜톤 등을 입국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이 미국을 좋아하게 하는 친선의 초석을 놓았으며, 한국인들이

125) 이순한, 사도행전 강해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93), 218.

126) 손봉호 편, 현대교회와 봉사생활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11.

127) 김근조, “세계명과 사회봉사”, 제천크리스천 뉴스, 2001년 10월 6일자, 2면.

128)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128.

129) 유의웅 편,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50.

기독교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입교케 하였다.<sup>130)</sup>

1895년 10월 7일 흥선대원군을 가담시킨 일본 영사관의 수비대와 경찰이 왕궁을 침입하여 건청궁에서 궁궐 시위대와 20여분간 전투가 있었고, 일본 수비대의 손에 명성왕후 민비가 피살되었다.<sup>131)</sup> 왕궁의 존엄히 이처럼 경멸되자 모든 국민의 마음이 충격을 받았고 큰 슬픔에 빠졌다. 고종은 이 참혹한 시련을 이길 힘이 없었다. 야만적인 민비 시해의 다음날 알렌 선교사와 웨베르 선교사가 급히 왕궁으로 달려갔을 때 고종은 의기 소침한 상태에서 시독될까봐 애처러울 정도로 떨고 있었으며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고종은 체면을 무릅쓰고 명성왕후의 서거에 한없이 슬피 울면서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왕후의 죽음을 누가 갚아 주기만 한다면 단발해 신을 꼬아 주겠노라”<sup>132)</sup>고 했다. 이때 한국교회의 선교사와 성도들은 고종의 슬픔에 함께 울었고, 이 시련에 동참 동고하였다. 알렌은 침묵할 수가 없었다. 당시 미국의 대리 공사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알렌은 민비 시해의 음모가 일본 공사관 안에서 진행된 내용을 계속 통보하고 일본의 만행을 울분으로 계속 공개했다. 알렌은 한국의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왕후 살해범을 처벌하라(王后殺害犯治罪)고 강력히 요구하였고, 일본 마수의 획책에 따라서 중전 민비를 서민으로 격하시킨 데 대하여 통박을 가했다.

1910년 이토가 안중근 의사에게 죽고 난 후 데라우치가 그의 후임으로 한국에 왔다. 데라우치는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을 위한 조인을 끝내고 8월 29일 이를 공포했다. 데라우치는 총독이 되었고, 한국을 통치하는 절대권을 갖게 되었다. 2만 명의 헌병과 그에 비등하는 헌병 앞잡이를 투입하여 한국 전역을 장악하였다. 헌병들은 수시로 가택수색을 하였고 한국인을 체포하였다. 개인의 자유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신문 등 출판물은 엄격히 검열을 받아야만 하였다. 일본은 한국 역사와 문화까지 말살하는 정책을 폈으며,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한국인의 일본화, 소위 황국신민화를 꾀하였다.<sup>133)</sup>

19세 말의 한국교회는 황제에 대한 현저한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한국을 한 백성에서 한 민족으로 형성시켜 주었다. 겨레의

130) 유의웅 편,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50.

131) 동아일보사 편, 한국 근대인물 백인선 (서울: 동아일보사, 1970), 57.

132) 민경배, 한국교회사, 169.

133)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1), 159.

비분이 터졌던 민비 시해 속에서 한국교회는 장로교와 감리교 교인들이 함께 정동교회에서 모여 그 서거를 애도하는 합동 추모예배를 올린 일도 있다. 아관파천으로 피했던 고종의 환어를 환영하기 위해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도로 연변에 늘어서서 복받치는 총절을 웅변적으로 시위하기도 하였고, 1898년 고종의 탄신일에는 교회가 큰 공공건물을 빌려서 그 축하회를 개최하였다. 기독교가 훌륭하고도 총성스러운 교리이며, 숭양할 만한 길이요, 가장 선한 사람들이 따르는 진리라는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나갔다.<sup>134)</sup> 민족교회의 길을 한국교회가 걷기 시작했으며, 민족일치의 구심점이 된 것이다. 한국민족의 가슴속에는 한국교회가 사회를 봉사하고, 민족을 섬기는 모습을 봄으로써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교회는 1895년부터 1907년에 걸쳐서 놀랄만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1895년도에 교인 수는 530명이었는데 1907년에는 26,057명으로 급성장 하였다.<sup>135)</sup> 한국교회 초기의 사회봉사는 1919년 3월 1일 3.1절 독립만세사건, 기독교학교 설립과 운영, YMCA, YWCA 등을 통한 청년운동으로 관계전도를 실천하였다.

### 3. 관계전도를 위한 사회봉사의 방법

관계전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는 봉사복음전도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리스버그의 제일침례교회목사 찰스 로우젤은 “봉사복음전도에 대하여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보살피 주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적절히 만족시켜 주며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sup>136)</sup>이라고 했다. 봉사복음전도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봉사복음전도는 속임수가 아니다. 봉사란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조건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봉사의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회봉사를 통하여 이웃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모범이 될 수 있고 이웃에게 향기로 또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담당케 된다. 성도는 생활의 본이 되어야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며, 말씀이 능

13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80-182.

135) Ibid., 182.

136) John Mark Terry,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Church Evangelism),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191.

력되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sup>137)</sup>

새제천교회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나는 성(聖)과 속(俗)의 구별 차원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무관심한 채 구원을 위한 자기 수양에 몰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비록 몸은 세속에 있지만 마음은 성에 있다는 식으로 성과 속을 구별해 온 것이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두 가지 모두 안으로는 철저하게 세속화된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외양을 하고 있지만 이미 속은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부패된 것이다.

새제천교회는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세속에 녹아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은 사회봉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는 큰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sup>138)</sup> 서울 도림교회 유의웅목사는 지역사회 개발원을 통하여 유아원, 소암장학회, 노인학교, 경로식당, 한글학교, 도서관, 독서실, 공부방을 운영한 결과 교회 자체와 타 교회에 미친 영향과 지역사회를 향한 공헌을 몇 가지로 정리했다.<sup>139)</sup> 첫째,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였다. 모이는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다. 교회 안에 숨어 있는 무궁무진한 평신도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에 대한 교인 스스로의 자부심이 커졌다. 둘째,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는 타 교회에 새로운 관계전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전체를 전도의 장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가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전도하여야 한다. 셋째,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주민들에게 유익을 주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 교회로 인식하게 되었다. 봉사는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것은 수직적인 봉사이요, 사람이 이웃을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것은 수평적인 봉사이다.<sup>140)</sup>

새제천교회가 관계전도를 위해서 설계하는 사회봉사의 방법은 다음 몇 가지가

137) Hudson T. Armerding, 리더쉽 업그레이드 (The Heart of Godly Leadership), 김기제 역 (서울: 엘멘출판사, 1999), 47-52.

138) 김영수, "행함의 사역을 담당하는 참 신앙인이 되자", 현대종교, 1993년 6월호, 86-93.

139) 유의웅 편저,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244-246.

140) 조선출 외 편, 그리스도교 대사전, 420.

있다. 좋은 이웃 봉사회를 조직하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누가의료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건강진료와 건강상담을 한다. 장학생 학사관을 건축하여 농어촌 교역자의 자녀와 어려운 이웃의 자녀에게 장학금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거처를 제공하며, 어린이 선교원,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장애 아동 조기교실 운영, 장애자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 등의 진로가 어려운 점을 착안하여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직업 재활 공장을 경영한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목요 경로대학 운영, 차를 마시며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휴게실 운영,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하는 자연치료 병원 운영, 환경보호 운동 등을 통하여 관계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다.



## 제 5장

### 관계전도를 위한 청지기 훈련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 부흥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며, 말씀이 흥왕할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 교회 부흥은 잘 훈련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이 잘 훈련된 신자가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과 영성훈련은 불가분의 관계이다.<sup>141)</sup>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전도를 위한 청지기 훈련을 생각훈련, 언어훈련, 생활훈련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 제 1 절 관계전도를 위한 생각훈련

인간은 누구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리고 생각은 각 사람의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되고 나아가서 그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된다.<sup>142)</sup>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생각의 권능(thinking power)이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의 생각이 되고,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고 생활이 변하고, 개인의 운명이 달라진다. 생각은 모든 창조의 기초이다. 생각에서 창조된 이후 물질세계에서도 창조가 일어나며, 능력 있는 생각이 될 때 기적은 창출된다.<sup>143)</sup>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이 마음에 생긴다(빌 2:13). 이 소원은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소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소원과 꿈이 생긴다. 아울러 이 소원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사명

141) 오성택, 파워 청지기 (서울: 엘앤출판사, 2000), 17.

142) 송천호,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진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97.

143) 명성훈, 인생헌법 (서울: 도서출판 크레도, 1994), 70.

감이 생기며, 자신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빌 4:13). 피조물된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생각은 인생을 성공시키는 큰 능력이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대 구원과 절대 긍정의 자화상을 가지고 사역한다. 사탄은 성도의 위대한 생각의 능력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과 천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존귀하게 생각하도록 한다(마 16:26, 막 8:36, 눅 9:25).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잠 23:7). 파스칼<sup>144)</sup>은 인간이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생각하는 갈대이며, 이 생각하는 활동에 있어서 위대하다고 하였다.<sup>145)</sup>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함께 깊은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밝혀졌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은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고, 축복을 가져 올 수도 있다.<sup>146)</sup>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였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믿음이 생기며,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계전도를 위한 생각의

144) 파스칼 (Pascal, Blaise 1623-1662),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종교철학자.

145) 김익달 편, 철학대사전 (서울: 주식회사 학원사, 1974), 371.

146) 민경설, 전도의 다이내믹 파워, 259-261.

훈련이 요망된다. 우리가 성공적인 관계전도를 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되어야 하며, 조건 없이 성령의 생각을 좇아가야 한다(롬 8:6-7). 마음의 생각은 끊임없이 관리하고 훈련시켜야 하며,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 만일 내버려두면 언제나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였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사람이 나쁜 생각을 몰아 내리면 열 한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47)</sup> 새제천교회는 관계전도자의 생각을 훈련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 1. 절대 하나님 중심의 생각

전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한다(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 22: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 2. 절대 긍정의 생각

전도자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렘 29:11, 고후 1:18-20). 전도자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긍정적 생각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래야 죄인을 용서하며 의인을 만드시고 지옥갈 자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구원 받고자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9)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예수는 삭개오에 대하여 아무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께 나온 그 자체만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다. 이것

147) 민경설, 전도의 다이내믹 파워, 267-273.

이 하나님의 긍정이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불신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주동자였으며, 교회에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때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고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교제의 악수를 거절하느냐고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나바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교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변호해 줌으로써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만들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얻게 되었고, 교회는 더 커다란 그릇으로 자라게 되었다.<sup>148)</sup>

### 3. 절대 사랑의 생각

전도자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인 사랑의 생각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전부이다(신 7:8, 렘 31:3, 요 3:16, 롬 5:8, 요일 4:7-8).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출산하였다. 다윗은 이 아기의 이름을 '솔로몬'<sup>149)</sup>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며 아기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셨다(삼하 12:24-25).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사랑을 받은 자'이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을 가르쳐서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느 13:26)고 하였다. 빌라델비아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겠다고 하였다(계 3:7-9).

148) 김명남, 바나바 사역교제 (성남: 바나바교육원, 2001), 29-30.

149) 히브리어 셸로모, 이름의 뜻은 평화, 평강이다. 다윗의 시대와 같은 전쟁과 살생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작명했다는 견해와 솔로몬의 출생이 하나님과 다윗 간의 화해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작명했다는 견해가 있다.

관계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새제천 교회를 사랑하시며, 전도 대상자도 사랑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의 의미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하셨다(요 13:34-35, 고전 13:13, 갈 5:6; 5:22, 엡 3:17-19; 5:2, 골 3:14, 요일 4:16). 참된 제자는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호칭이다. 사랑은 참된 제자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지식이 제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아니다. 주님은 지식의 양이나 내용을 가지고 제자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삶의 계명을 통하여 정의하였다.

사랑의 관계가 제자훈련의 본질이며,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제자훈련은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다. 제자훈련이 백과사전식 지식으로 치우치면 비판의식과 정죄의식이 더 강해지며, 사랑의 수고와 희생의 도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고전 8:1)라고 하였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줄을 알았으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는 실패하였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데 실패하였다. 바울은 지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고전 8:2-3)고 하였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다고 정의한다.<sup>150)</sup> 관계전도를 위한 생각의 훈련에서 절대 하나님 중심의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절대 사랑의 생각이 요구된다. 철학자 에머슨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sup>151)</sup>라고 하였다.

## 제 2 절 관계전도를 위한 언어훈련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며(창 1:3-4), 영원히 죽어야 마땅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이 육

150) 김점옥, 차세대 한국교회의 모델, 199-201.

151) 명성훈, 장년출석 300명 돌파의 원리와 전략, 25.

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요 1:14).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었다(요 1:1-2).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창조의 말을 하게 하셨다(창 2:19).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도 사람에게 주신 언어로 전파할 때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롬 10:8,14).

관계 전도자의 영혼구원 사역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함으로, 언어훈련을 하여야 한다. 언어는 행동을 지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돈스럽고 어두울 때 의지적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과 함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빛이 나고 질서가 잡히게 된다(창 1:1-5).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말씀 즉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 때 그 혼돈되었던 세계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로 바뀌었다(창 1:31).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복된 말을 해서 마음을 먼저 지배하고, 이 마음이 삶을 지배하는 질서와 창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전도자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 언어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창조의 능력이 있어 환경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기 입에서 나가는 언어로 구원의 집과 행복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관계 전도자의 실제 언어 훈련은 성령에 순응하여 훈련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sup>152)</sup>

### 1. 절대 믿음의 말을 해야 함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천국시민의 행복과 가치를 자신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 들여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요 20:31). 복음에 의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도의 신분이 변한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이루시었다(마 3:16-17; 4:17). 전도자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하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152) 민경설, 전도의 다이내믹 파워, 251.

하심을 받은 자”(골 3:10)가 된다. 전도자는 이 새사람의 가치관을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었다(빌 3:7-9). 전도자에게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신다. 전도자는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요, 재산임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러한 삶의 가치를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마 10:8-10, 행 3:6-8).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사탄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다윗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승리하였다(삼상 17:1-58). 전도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과 믿음이 총명한 말로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며, 평화가 넘치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엡 6:10-13).

전도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다 못박고 죽음을 체험했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이다. 이 성도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자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자이다(롬 6:4; 8:21).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둔 자이기에 이 소망의 믿음을 근거로 말하고, 이 비밀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고후 4:16-18).

전도자는 성령 총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총만을 받게 되면 언어가 달라지고 성령은 해야 할 말을 주신다.<sup>153)</sup> 전도자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하여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좋은 친구와 교제하고, 침묵하는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마 12:34-35, 행 4:20, 고전 15:33). 아울러 전도자는 상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믿음의 언어를 전달해야 한다.<sup>154)</sup>

## 2. 절대 기도의 말을 함

관계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지원 요청이요, 영적 호흡을

153)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 (서울: 두란노, 2000), 174-175.

154) Jerry D. Twentier, 칭찬의 위력 (The Positive Power of Praising People), 정정숙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6), 152-154.

통한 기력 회복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유일한 방법이다. 새제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고 “일평생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기도목회를 힘쓰고 있다. 예수께서 친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41),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눅 21:36)고 하심으로써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교회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라고 하므로써 기도의 중요성을 권면했다.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엡 6:12, 스펴 4:6, 막 9:29, 행 16:18).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으며, 유지하는 길이다(골 2:28, 눅 11:13, 행 1:8; 2:38; 4:31).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된다.<sup>155)</sup>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인 마귀와 사탄은 제압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전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문을 열 수 밖에 없다. 전도자는 기도 이론을 바르게 정립해야만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실제적인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응답의 체험을 가질 수 있다.

기도 이론은 기도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기도에 의하여 외부의 뜻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서로 연합하시며, 교제하시며, 역사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동등한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다(마 28:18).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두려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항상 예수의 말을 들으심을 알 수 있다. 우주 만물의 섭리는 예수의 간구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sup>156)</sup>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만

155) 정태영 편, 천국으로 가는 길, 253.

156) 민경설, 전도의 다이내믹 파워, 201.



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6-17)고 했다.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택정한 자를 구원하시고(롬 8:30), 믿는 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으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요 1:12; 14:13-14). 그러므로 전도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주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였다(마 16:19).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 명예, 권세를 비롯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철저히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빌 3:8-9, 갈 2:20). 전도자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예수 안에서 현재 속에 조화되며, 성취된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의 원천은 기도였다. 기도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이다.<sup>157)</sup> 전도자는 절대 기도의 말을 훈련하므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입고 사단에 묶여 있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다.

### 3. 절대 안해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분별함

언어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대한 심판을 언어에 내리셨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을 보시고 구음(口音)을 풀어 버리시므로 언어의 장벽이 생겼다.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가 위험하고 두려운 것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약 3:8-10)고 하였으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잠 21:23)고 하였다.

신약 성경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눅 16:19-31)에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

157) Thom S. Rainer, 교회성장 교과서, 216.

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고 하였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왜 하필이면 혀가 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박윤선 박사는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생함과 나사로가 천당에 가서 위로를 얻음은 각각 그들이 현세에서 행한 대로 받은 분깃인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내세가 현세에서 추론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현세는 내세의 분수령”(158)이라고 했다. 이순한 목사는 누가복음 강해에서 “음부는 히브리어 스올로 영계의 지옥”(마 11:23; 25:41, 계 19:19-21)이고, “믿는 자나 불신자가 죽은 후에 가는 중간상태가 아니다”(159)라고 힘주어 말한다. 부자가 최소한의 자비를 구하고 있음은 극한 갈등을 절규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혀의 고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을 거슬러 했던 완악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며,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다.(160) 최기채 목사는 이 고통은 언어에 저주를 내리시던 하나님께서 부자가 살았을 때에 그의 말에 대한 심판이며, 마지막 심판 때에도 혀를 먼저 심판하시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며, 바른 말을 사용하지 못하며,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 형제를 괴롭힌 자들에게 혀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161) 그러므로 전도자는 언어를 조심하고 언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혀를 가지고 덕스러운 말, 진실하며 은혜로운 말,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기여해야 한다.

우선 전도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쉬우므로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 있을지라도 거짓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마음에 진실한 것을 말하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으며(시 15:1-3),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고(시 17:1), 진실한 말은 힘이 있으나(욥 6:25) 거짓은 자신도 이웃도 망치는 사단의 함정이다(잠 6:2, 렘 9:8, 요 8:44). 사도 바울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엡 4:25, 골 3:9, 례 19:11, 시 101:7)고 하

158) 박윤선, 공관복음 성경주석 (서울: 영음사, 1973), 632.

159) 이순한, 누가복음서 강해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95), 528.

160)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누가복음, 368.

161) 최기채, 집사 장로 교양과 훈련 (서울: 성광문화사, 1996), 184-185.

였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계 21:8).

둘째로 전도자는 이웃을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 노아의 홍수사건 이후 노아는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를 수확한 후 포도열매로 포도주를 담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창 9:20-27).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셈과 야벳은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창 9:25)고 하였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워 준 셈과 야벳에게는 많은 축복을 예언하였다. 성경은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잠 11:13)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하며, 권면하여 회개 하도록 힘쓰며, 깊은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

16세기에 루터와 칼빈, 쾰빙글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와 함께 기독교내에서도 다른 갈래의 종교개혁의 흐름이 추진되고 있었다. 보다 철저한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이 개혁 세력은 교회사에서 재세례파라고 불리운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참된 교회의 회복(restoration of the true church)에 있으며, 참된 교회는 철저한 제자도에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유아세례와 천주교회의 세례, 즉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이 없이 단지 천주교회의 형식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신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 당시 교회의 관행을 반대하였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이 모여 구주로 믿는 확실한 신앙 위에서 진정한 의미의 세례를 다시 받았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세례를 받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종교개혁의 주류 세력에 의하여 재세례파(anabaptists)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재세례파에는 크게 ‘메노나이트’(mennonites)와 ‘후터라이트’(hutterites)라는 두 공동체가 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공동체적인 삶을 특징으로 하는데, 영국의 런던에 소재한 후터라이트 계열의 로버트 브릿지 브루더호프(Bruderhof) 공동체를 방문 취재한 김현진 목사는 이곳을 진정한 안식인 기쁨, 사랑, 평화가 넘친다고 하였다. 특

별히 타락이전의 인간 원래적인 상태로 회복된 영성으로 하나님, 이웃, 자연의 관계가 아름다웠다고 한다. 여기엔 대화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으며, 나즈막한 소리로 도란 도란 얘기하는 대화에는 결코 남을 험담하는 법이 없다. 이 공동체의 지도자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공동체를 깨는 가장 무서운 적은 험담이라고 강조한다.<sup>162)</sup> 전도자는 절대 험담해서는 안됨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셋째로 전도자는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랑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며, 형제로 시기 나게 하여 다툼을 유발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처사가 된다(욥 11:3, 사 5:21, 눅 18:11). 자랑은 악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시 12:3)라고 하였으며,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사 10:12)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의 죄악을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동급으로 다루며, 하나님이 미워하시기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롬 1:28-32). 그러기에 지혜자는 말하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잠 27:1-2)고 하였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빌 3:3). 오직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되신 교회만을 자랑해야 한다.

넷째로 전도자는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안해야 한다.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 됨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한 불평까지도 금해야 한다(시 37:1). 우리가 불평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려면 끝이 없는 것이다. 전도자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교양과 신앙 인격이 필요하다. 전도자는 모든 이웃에게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하듯이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며 품어야 한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치료와 기적의 희망을 안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왕하 5:1-19).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도착하였을 때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네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고 하였다. 이 때 나아만은 불평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 경솔한 태도를 취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불평하고 분노했는가? 열왕기하 5장 11절에

162) 김현진, “초대교회로 살아가는 후터 형제단 공동체”, 빛과 소금, 1992년 9월호, 190-197.

기록된 대로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교만한 주관성 때문에 불평하였고, 분노했음을 알 수 있다. 전도자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교만에서 오는 불평과 원망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그러면 전도자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전도자에게 있어서 말조심이란 무조건 함구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 말은 꼭 해야 한다. 지혜자는 권면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과니라”(잠 25:11)고 하였다. 전도자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형제의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전도자는 이웃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한다. 듣는 것도 대화임을 확신할 때 듣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다. 전도자는 마음이 상한 자, 고난 당하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죽어 가는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시고 있으며, 이 형제를 위하여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이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주 안에서 잠자다가 다시 살 것을 말해야 한다(요 3:16; 11:25-27, 행 16:31, 고전 15:50-58). 전도자는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한다(행 2:4).

### 제 3 절 관계전도를 위한 생활훈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사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눅 17:20-21)라고 하였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물질을 애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 영적 조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163)</sup> 우리의 주거지는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이 통치하는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국이다.

이 왕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요, 하나

163) 민경설, 전도의 다이내믹 파워, 210.

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은혜로 체험한 자요, 삶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믿음을 따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이다(벧전 1:18-23). 이러한 성도를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칭한다. 관계전도는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확신, 구원받은 후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sup>164)</sup> 이 행복 이 기쁨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곳에서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난다.<sup>165)</sup>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릴 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절망 중에 있는 이 세상의 가련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관계전도를 위한 생활훈련은 전도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이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새제천 교회는 성령세례 운동, 경건훈련, 성도의 교제 훈련에 중점을 주고 있다.

#### 1. 관계전도를 위한 성령세례 운동

새제천교회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성령세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sup>166)</sup> 성령세례와 중생은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험이다. 물론 두 가지의 체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기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다. 예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불러 택하시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였다. 이미 중생을 체험하였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가롯 유다 외에는 모두 다 깨끗하다고 하심으로 그들의 중생을 보증하신 바 있다(요 13: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다. 이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린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164) 민경설, 전도동력 리포트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9), 13-22.

165) D. M. Lloyd Jones, 성령론, 홍정식 역 (서울: 새순 출판사, 1989), 116.

166) 정태영 편, 천국으로 가는 길, 108.

제일 먼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2)라고 물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을 때에 자동적으로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중생과 성령세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중생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체험이요,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전도사역과 봉사사역을 위하여 전도자가 권능을 받는 체험이다. 성령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인침이라는 용어가 세번 나타난다(고후 1:12, 엡 1:13; 4:30). 성령의 인침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사라는 확신을 준다.<sup>167)</sup> 성령세례를 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라고 하신 것을 깊이 알게 하신다. 또한 성령세례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고후 5:13-14)하며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건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이 성령께서 예수의 증거자가 된다고 확증하셨다(요 15:26).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처럼(요 14:7-12)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sup>168)</sup>

새제천교회는 성령의 신학적 논쟁을 불허한다. 성령 총만은 외적 총만인 은사와 권능, 내적 총만인 성령의 열매가 모두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금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사와 표적, 질병의 치료와 사단을 제어하고 내어 쫓는 병마치료의 역사가 계속됨을 믿는다.<sup>169)</sup> 우리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이론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기도의 유익을 인정한다. 방언기도의 유익은 첫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활성화된다(행 2:14-41; 3:1-8; 5:3-16). 둘째, 깊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덕을 쌓는 은사가 된다(고전 14:4-5). 셋째,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은택을 입는다(롬 8:26-27). 넷째, 예수의 뜻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전 14:22). 다섯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는 것처럼 전도자의 영혼이 심을 얻고 소생케 된다

167) D. M. Lloyd Jones, 성령론, 122.

168) 김병원 외 편,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6), 200.

169) 명성훈, 성령과 함께 (서울: 도서출판 크레도, 1996), 88.

(요 7:38-39, 사 28:11-12, 시 23:2-3). 여섯째,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전도자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유 1:20-21). 성령과 믿음의 관계는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곱째, 깊은 방언기도를 통하여 지성소 예수를 체험함으로 삶 속에 행복이 넘치고 환난을 이기게 한다(살전 1:6; 5:16). 여덟째, 감사가 넘치는 긍정적인 전도자가 되게 한다(엡 5:20, 빌 4:7). 아홉째, 권능 받고 증인되는 전도자가 되게 한다(행 1:8). 열 번째, 권세 있는 믿음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전도자가 되게 한다(마 28:18, 눅 10:19, 계 22:14).

그러면 성령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결핍이 성령세례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성도의 교만(사 14:12-14, 딤후 3:6, 잠 16:18; 28:25), 회개하지 않은 죄(막 11:24-26), 재물과 세속 사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마 6:24),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생각(눅 9:26), 간절한 소원과 간구의 부족(눅 11:13, 약 4:2) 등이 성령세례를 방해하고 있다.<sup>170)</sup>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매일 정시 기도(행 1:4, 엡 6:18), 매일 정시 말씀 연구(히 4:12), 죄는 즉시 회개(요일 1:9, 롬 12:1-2, 고전 3:17), 성령 하나님을 속이거나 근심시키거나 은사를 소멸치 말아야 한다(행 5:3; 7:51, 엡 4:30, 살전 5:19). 성령과 함께 하는 전도자는 믿음의 생활화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된다.<sup>171)</sup>

교회 부흥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교회 전도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며,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복음을 수용하는 환경을 조성하신다. 지역마다 복음에 저항하는 지역귀신이 있으며, 지역귀신이 강한 곳에는 복음전파가 어렵다.<sup>172)</sup> 새제천교회가 제천시 하소동에 예배당을 신축하기 시작할 때 주위에는 불교 대승사 신도들과 무당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을 방해했으나 성도들의 강한 기도와 성령의 능한 역사로 이런 방해 요인을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복하였다. 성령은 불신자가 거듭난 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 롤랜드 알

170) 정태영 편, 천국으로 가는 길, 117.

171) 명성훈, 성령과 함께, 183.

172) Ibid., 191.



렌(Roland Allen)은 성령이야말로 “선교의 영”<sup>173)</sup>이라고 했다. 전도자는 성령이 임재하실 때만 개인의 구원과 성화, 사회의 갱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가능함을 믿고 성령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 2. 관계전도를 위한 경건훈련

성령 하나님이 전도자 가운데 임하시어 심령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경건이 넘치고 경건의 비밀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이란 말에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오는 능력과 실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도 실제적인 헌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sup>174)</sup> 이동원 목사는 그의 책 이렇게 사역하라에서 경건이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sup>175)</sup>이라고 하였으며, 김남준 목사도 그의 책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에서 경건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지배당하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거절하는 배타적인 사랑의 상태”<sup>176)</sup>라고 하였다. 레슬리 R. 스미스는 경건을 “자신의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신의식 가운데 사는 것으로써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sup>177)</sup>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가 의로움(눅 2:25), 정결함(약 1:27),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요 9:31),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행 10:2),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전도자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벧후 1:3)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경건의 삶으로서 자신이 믿는 복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78)</sup>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경건의 삶에는 덕을 포함해야 하며, 이 믿음의 덕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173) 국제 신학 연구원,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신앙과 신학 II (서울: 서울서적, 1993), 131.

174) 정인찬 편, 성서대백과사전 1권, 234.

175) 이재은 편, 기독교 문장 대백과사전 2권 (서울: 성서연구사, 1993), 150.

176) 김남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30.

177)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교리 9권, 176.

178) John H. Leith,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오창윤 역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9), 90.

든지 경건하며, 경건을 좇아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였다(빌 4:8, 딤후 4:7-8; 6:11, 딤후 2:12).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딤후 3:5)가 되어서는 관계 전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가리키며, 기독교인의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처럼 행세함을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경건의 흉내만 낼 뿐이지 경건의 내용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다.<sup>179)</sup> 박윤선 박사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유를 “그 자신이 진정으로 중생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한 까닭”<sup>180)</sup>이라고 한다.

본 연구자는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에 나타난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경건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나는 임태치 못하는 괴로움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해결하려 한다. 이 때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한나를 지켜보고 있다(삼상 1:9).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엘리는 한나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였다. 이 때에 한나가 항변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심정으로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종으로 여기지 마세요”라고 한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성도의 깊은 기도와 세상의 악한 여자들이 술에 취한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의 경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엘리는 영적 상태가 세속적이며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차 있으나, 한나는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대조적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를 악한 여인의 모습으로 판단한 엘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어떠한 생각에서 그랬을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왜 엘리는 한나와 함께 기도하며 한나를 위로하고 축복하지 못했을까? 엘리의 경건과 영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 한나의 경건은 아들 사무엘에게 이어지고, 엘리의 불경건은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에게 이어졌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삼상

179)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주석 15권, 1147.

180) 박윤선, 바울서신 성경주석, 547.

2:11) 하였으나,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 하더라”(삼상 2:12)고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행하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는다. 이 때 엘리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아들이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였다. 엘리의 이러한 태도는 홉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죄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결국 두 아들은 아버지 엘리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였다(삼상 2:25).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 하던 날 이스라엘의 보병 3만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이 날 엘리도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삼상 4:18). 이 날 엘리의 며느리이며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을 출산하고 죽어 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삼상 4:21)라고 외친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었을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딤후 3:5)을 상실한 엘리와 홉니와 비느하스 때문이다. 반면에 한나의 가정은 3남 2녀의 자녀를 선물로 받았으며, 여호와 에벤에셀의 축복을 누리었다. 전도자가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 속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학문적 이론이나 사상, 주장을 받아 드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와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전 인격적인 세계관의 변화를 포함한다(고후 5:17, 갈:20).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마 22:37, 막 12:30, 눅 10:27).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경건의 능력이 생긴다. 성도의 세계관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인생의 생사화복의 절대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고, 장차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땅을 회복하실 것임을 믿는다. 온전한 성도가 될 때 전도자는 경건의 능력이 충만하며, “삶의 방향”<sup>181)</sup>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 것이

181) Brian Walsh and Richard Middletown,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변혁, 김항안 역 (서울: 도

다(갈 5:25). 둘째, 전도자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희생적 삶의 실천이다. 전도자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면 예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종의 도를 행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요 13:1-15, 막 10:43-45).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독교 고전을 비롯한 경건 서적을 매일 읽고, 찬양 부르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경건 일기 쓰기 등에 시간을 사용하면 경건의 능력이 갑절로 임할 것이다(딤후 3:15-17, 렘 33:3, 계 5:8; 14:3; 15:3).

새제천교회는 심령 부흥성회, 기도원 수련회, 100일 성경 읽기 수련회, 금요 기도회, 세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회, 열두 보석 기도회 등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생활 훈련시키고 있다. 새제천교회가 경건한 전도자의 모범으로 삼는 성경 인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승천한 에녹이다(창 5:24). 둘째, 당세에 완전한 자라 인정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 노아이다(창 6:9). 셋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던 요셉이다(창 39:23). 넷째,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얼굴 까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던 지도자 모세이다(출 34:30). 다섯째, 준비된 믿음으로 소명을 받은 사무엘이다(삼상 3:1-9). 여섯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목을 벤 목동 다윗이다(삼상 17:31-58). 일곱째, 여호와를 경외한 아합의 궁내대신 오바댜이다(왕상 18:1-6). 여덟째, 자녀의 성결을 위해 늘 번제를 드린 욥이다(욥 1:5). 아홉째, 서원기도 한 후 믿음으로 실천하였으며 큰 축복을 받은 한나이다(삼상 1:11). 열째,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이다(단 6:10-23). 열한번째,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금식한 안나이다(눅 2:36-38). 열두번째,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총만했던 바나바이다(행 11:24).

### 3. 관계전도를 위한 성도와 불신자의 교제훈련

성도의 교제는 헬라어 '코이노니아'(koinonia)로서 본래의 뜻은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진다든지, 서로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의미가 있다(고후 8:4).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교제를 말한다(고후 13:13). 그리스도와 연합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현재로 언제나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초자연적이며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가질 수 있다(마 28:20, 고후 1:22; 5:5, 빌 1:20-26).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서 절정을 이루며(고전 1:7, 빌 2:1, 요일 1:3),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의 만찬에서 가시적으로 표현된 성도의 교제를 발견한다(빌 3:10-16, 고전 10:14-16; 11:23-26).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이웃간의 영원하고도 참된 교제 속에서 그 완성에 이르며, 이 교제는 하늘나라 영광의 축복을 구성한다(시 73:23-28, 히 12:22-24, 계 5:9-14; 7:9-17). 새제천교회는 관계전도를 위하여 전술되고 있는 성도의 교제보다 성도와 불신자의 교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를 분석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래쉬(Christopher Lash)는 현대사회를 나르시시즘(narcissism)<sup>182)</sup>문화로 표현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심주의'로 번역이 된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사도 바울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딤후 3:1-2)라고 예언하였으며, 지금 성취되고 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이버(R. Niebuhr)는 일찍이 자기사랑, 위선, 그리고 교만이 인간의 원죄라고 했으며, 이 세 가지 죄는 이기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철학자 홉스(J. Hobs)도 인간은 심지어 남을 도울 때도 이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도 실상은 남을 돕지 않을 때 자기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행해진다는 것이다.<sup>183)</sup>

한국교회는 세속주의에 오염되어 성도들의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부추기고 있다. 상계중앙 교회 김성찬 목사는 한국교회를 "얇은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마 21:18-19)라고 비판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곡해한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프리즘(prism) 축복은 "너를 인하여(through)" 만민에게 찬란히 펼쳐지는 무지개 빛 나눔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축복을 오목렌즈의 축복, 즉 "너를 위하여(for)" 라는 축복으로 받아 드렸으며, 나눔의 열매가 없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sup>184)</sup>

182) 나르시시즘은 정신분석학 용어이다. 자기의 신체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으로 일종의 자기색정이다. 프로이드는 이 개념을 자기의 육체, 자아, 정신적 특성이 스스로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예컨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용모가 아름답다고 황홀하게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183) 김정오, "이기주의의 뿌리를 캐낸다", 빛과 소금, 1990년 9월호, 58.

184) 김성찬, "교회마저 이기주의에 빠졌는가?", 빛과 소금, 1990년 9월호, 66-69.

상기한 바와 같이 교회의 안과 밖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새제천교회는 안 믿는 불신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뿐만 아니라 관계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새제천교회는 불신 이웃을 전도하는 일곱 가지 열쇠를 생활훈련에 적용하고 있다.<sup>185)</sup> 첫 번째 열쇠는 성령이 당신의 이웃 사람 위에 댄돌고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 보라. 그런 후에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웃 사람을 마음에 그려보아야 한다. 조용기 목사는 “바라봄의 법칙이 바라보는 대상을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게 한다”<sup>186)</sup>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인 땅을 주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4-15)고 하셨으며,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창 15:5)고 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의지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각과 상상력의 지배를 받는다. 전도자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고후 10:5) 한 후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면 그 목표와 전도자의 사이는 서서히 가까워져서 서로를 소유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두 번째 열쇠는 이웃 사람들의 얼굴을 익혀야 한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낯익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세 번째 열쇠는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불신 이웃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혜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만날 때마다 공손히 웃으며 인사하여야 한다. 인사는 관계의 시발점이다.<sup>187)</sup> 이웃의 이름을 외우되 부부와 자녀의 이름은 물론이며, 친가와 처가의 가족이름, 기르는 강아지의 이름까지 암기한 후 친근하게 불러야 한다. 이웃과 만났을 때는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 가운데 “성실한 경청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시”<sup>188)</sup>해야 한다. 이웃의 자녀문제, 고부간의 갈등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사 문제, 병역 문제, 결혼 문제, 집수리 문제, 애완 동물 문제, 자동차 문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며, 함께 걱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185) Joseph C. Aldrich, 생활전도, 217-233.

186) 조용기, 삼박자 구원 (서울: 서울서적, 1988), 229.

187) 나겸일, 전도집중교회로 만들라, 170.

188) 권이종 편,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합동 문화 출판사, 1984), 39.

네 번째 열쇠는 이웃을 전도자의 가정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이웃을 식사에 초대할 때는 너무 요란스럽지 않은 것이 좋다. 이웃은 정성이 담긴 간단한 식사에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관계가 훨씬 깊어진다”(189)는 사실을 전도자는 믿어야 한다. 올림픽에서 100미터 달리기 우승자인 칼 루이스는 스타트 지점에서 마지막 골인 지점을 테이프로 끊고 자신이 우승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더니 이상하게 자신이 생겼고 결국 우승했다고 하였다. 이 이미지가 성공법은 스포츠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190) 관계전도에서도 활용되어야 한다. 이웃과 함께 하는 식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와 시간 속에서 사랑의 줄로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나누는 사랑의 잔치이다. 이 식탁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며, 서로 편안해야 한다. (191) 이 식탁에는 서로 이웃간의 감사와 고마움을 덕담으로 나누며, 십자가의 은혜를 인한 “어린양의 혼인잔치”(계 19:9)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한다. 이웃을 식사에 초대하였을 때 복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식사 전에 이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열쇠는 공동관심사를 만들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 사역의 목적은 동일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다. 이웃의 관심이나 취미가 무엇인가 파악한 후 함께 동역하는 것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만든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등을 활용하여 이웃과 함께 이웃의 외로움이나 아픔을 함께 위로하며, 나누는 사역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웃에게 기독교 서적이나 테이프를 선물하고 이 후에 그 내용을 함께 토론하는 일은 중요하며, 전화, 편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제를 하여야 한다. (192)

여섯 번째 열쇠는 추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전도자가 불신 이웃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의 관심을 찾아 배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목적은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유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까지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비법이다(요삼 1:2, 시

189) 나경일, 전도집중 교회로 만들라, 171.

190) 아나 야스오,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 이경민 역 (서울: 도서출판 매일, 2000), 178-179.

191) Ralph G. Turnbull, 주님의 성만찬 (At The Lord's Table), 문석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8), 74-75.

192)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231.

1:3, 계 20:6). 이 축복을 불신자 이웃에게 드리키 위해서 전도자는 기도하면서 가정 성경공부, 구역예배, 간증집회, 기도모임, 수양회, 세미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흥회, 찬양집회, 교회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에 초청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도움 받을 것을 권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열쇠는 불신자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딤후 3:16)한 것을 온전하게 믿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자는 성경번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번역자는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모습인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경 번역의 중심에는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닦아 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sup>193)</sup> 사도 요한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요일 4:17)하였다. 전도자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요,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고후 5:20)이기 때문이다.

불신자 이웃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인 대화의 원리가 있다. 첫째, 성경의 진리가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용해야 한다.<sup>194)</sup> 칭의는 이웃에게 놀라운 기적의 유익을 주는 용어로서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황금열쇠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내주 하심은 지옥 같던 움막집이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전도자는 친근감 있고 부드러운 겸손으로 말하되 시각적이며, 감각적인 언어로 말하면 효과가 있다.<sup>195)</sup> 셋째, 전도자는 아낌없이 투자하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sup>196)</sup> 그러면 불신자 이웃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 새제천교회는 ‘사영리 전도지’<sup>197)</sup>를 사용하고 있다.

193) Leighton Ford,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201-215.

194) Joseph C. Aldrich, 생활전도, 245.

195) 아나 야오스,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 396-413.

196) 이재창, 104가지 십계명 (서울: 도서출판 엘피스, 2000), 69.

197)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요 3:16; 10:10, 롬 5:8, 엡 5:2). 제2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 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창 3:19, 대상 10:13, 잠 11:19, 롬 5:12; 6:23). 제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



---

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롬 6:6; 8:36, 고후 4:11, 갈 2:20; 5:24, 골 3:3, 딤후 2:11, 벰전 2:24).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요 1:4; 10:10; 11:25; 14:6, 롬 5:21, 딤후 1:10, 요일 5:12).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요 10:9, 행4:12; 15:11, 롬 5:9; 10:9, 살 5:9, 히 5:9; 9:28) 제4원리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신 14:2, 사 63:16, 호 11:1, 요 1:12, 롬 8:15, 고후 6:18, 갈 4:5-6, 엡 2:8-9, 계 3:20).

## 제 6 장

### 관계전도를 통하여 출생한 새가족 양육원리

새제천교회는 관계전도를 위한 생각과 언어와 생활훈련을 통하여 출생한 새가족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도록 양육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환경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조건이 된다.<sup>198)</sup> 그러므로 새제천교회는 담임목사가 중심이 되어 훈련된 바나바 사역자와 함께 새가족 양육을 힘쓰고 있다. 본 장에서는 새가족 양육자의 자세, 새가족 양육의 성경적 원리, 새가족 양육의 실제, 새가족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개진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새가족 양육자의 자세

일반적으로 새가족의 의미는 교회에 새로 등록된 성도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새제천 교회에서는 새가족의 의미를 난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처음 출석한 새신자를 지칭할 때 사용함을 밝힌다. 세상에 금방 태어난 아기처럼 연약한 새가족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양육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교역자 자신이 먼저 제자훈련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sup>199)</sup>고 하였다. 새가족 양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인격전달이라는 점에서 지도자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sup>200)</sup> 아울러 교회의 분위기는 기존 신자만을 보호하는 요새가 아니라 불

198) 최정성, 전도훈련 핸드북 (인천: 도서출판 예향, 1998), 128.

199)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47.

200) Ibid., 148-150.

신자와 새가족을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군단 같은 축제의 분위기로서 새가족을 환영하고 반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sup>201)</sup>

새제천교회가 새가족을 환영하는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주차시설과 주차장 안내요원이 있는가? 둘째, 친절한 예배당 안내위원과 새가족 지정좌석이 있는가? 셋째, 새가족 옆에 새가족 담당 바나바가 있는가? 넷째, 교회주보는 새가족이 보아도 부담이 없는가? 다섯째, 성도들은 친절과 미소로 인사하는가? 여섯째, 새가족에게 명찰과 꽃과 기념품을 증정하는가? 일곱째, 새가족 환영순서가 예배 중에 있는가? 여덟째, 예배후 여러 성도가 관심을 가지며 인사를 나누는가? 아홉째, 새가족에게 교회시설 안내를 하는가? 열 번째, 새가족 성경 공부 반에 참석시키는가? 교회는 새가족을 위해서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함께 충분한 재정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새가족을 지혜롭고 건강한 성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자세가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감격과 행복

양육은 양육자가 먼저 체험하고 은혜 받은 만큼 새가족에게 전달된다. 사망과 절망을 이기고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한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양육자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구원의 확신에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내적인 증거로 양육자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하고, 둘째는 외적인 증거로 양육자의 삶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고, 셋째는 상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삶이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로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sup>202)</sup> 구원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 체험의 속성이 있다. 칼빈은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sup>203)</sup>으로 보았으며, 이 연합은 성도의 지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그와 연합되었다(골 3:26, 시 1:3, 요 3:3, 딤후 3:5, 뱀전 1:23, 요일 5:1). 양육자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며,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의 심령에 건설된다. 양육자는 이 구원의

201) 명성훈, 장년출석 300명 돌파의 원리와 전략, 127.

202) 최정성, 전도훈련 핸드북, 130.

203)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키워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118.

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한다.

## 2. 예수의 온전한 제자

제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는 자이다. 이것은 제자의 존재가 제자로서 행해야 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sup>204)</sup>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기 위하여 고난과 버림을 받았듯이 제자도 참된 제자가 되려면 고난과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마 16:24; 19:21, 눅 9:23, 롬 14:21, 고전 10:24, 빌 2:4). 제자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진정한 은혜요, 감격이요, 기쁨이다. 제자는 언제든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제자의 몸에 지닌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sup>205)</sup> 옥한흠 목사는 양육자가 양들을 위해 죽어야 하며(요 10:11), 등에 업은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다 먹이고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기고 죽는 어미 거미처럼 양육자는 성도가 봉사자와 증인으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텅비도록 내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206)</sup>

## 3. 목회 철학이 분명하고 확실

교회의 사도적 사명은 목회자 혼자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계승해야 하며, 이 일을 위해서 성도는 몸의 지체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sup>207)</sup>

## 4.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와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양육자는 기도함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sup>208)</sup>

## 5.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의 삶으로 충성

204) Ibid., 153.

205) 전가화, 새신자 신앙훈련교재 (서울: 은혜사, 1988), 217-226.

206)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48-149.

207) Ibid., 151.

208) 민경은 편, 새신자 목회세미나 자료집 (서울: 장석교회 새신자부, 1993), 35.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창 39:6, 왕하 12:15, 대하 34:11-12, 느 13:13, 단 6:4, 고전 4:2, 히 3:5, 계 2:10). 잠언은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 27:23)하였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고 하였다. 이중표 목사는 “순교자의 목회”라는 글에서 “순교는 제자의 길이요, 목회도 순교자의 길이니, 이것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요, 순교적 목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sup>209</sup>고 하였다. 충성된 양육자로 인하여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지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수고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양적 부흥 즉 교회의 빌딩업(building up)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sup>210</sup>

## 제 2 절 새가족 양육의 성경적 원리

양육자는 새가족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돌봐야 한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던 목자의 심정(눅 15:3-7)으로 새가족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는 간절한 목자의 마음이 요청된다. 양육자는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약 5:7)과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살전 2:7, 히 5:13-14)으로 애정과 자상함으로 새가족을 돌봐야 한다. 새제천교회는 새가족을 양육하는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마 4:4, 히 4:12, 시 119:1-176, 렘 15:16; 23:29). 둘째, 오직 기도로 양육하라(마 7:7, 요 17:6-9, 살전 5:17). 셋째, 오직 모범을 통한 믿음의 덕으로 양육하라(고전 11:2). 넷째, 오직 교회의 대소사에 직접 참여시키므로 양육하라(눅 10:2, 히 10:25). 다섯째,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양육하라(엡 4:13). 상기한 원칙을 귀중히 여기며, 이제 예수의 양육원리, 사도 바울의 양육원리, 바나바의 양육원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 1. 예수의 양육원리

교회에서 새가족을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이다. 왜냐하면

209) 이중표 외 10인, 교회 발전을 위한 인격개발 (서울: 쿤란 출판사, 1991), 237-262.

210)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키워라, 211-229.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일에 가장 탁월한 선생이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르치는 교육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가장 강하게 확신하였던 천재적인 교사였기 때문이다.<sup>211)</sup>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를 사람들은 랍비라고 불렀으며,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가르치는 사역이 탁월한 교사로 인정하였다(마 22:16, 막 12:14, 눅 20:21).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 가운데 목사와 교사가 있으며, 이것은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엡 4:11). 예수께서 새가족을 양육하신 원리는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삶의 모범을 통하여 새가족을 양육하였다.<sup>212)</sup> 예수께서는 새가족과 함께 동거하면서 새가족의 필요와 아픔과 장점과 문제를 파악하실 수 있었으며, 치료와 회복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올곧게 키워 가셨다. 예수께서는 새가족과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길가와 해변과 광야를 함께 다니며 질문했고 자연스런 대화로 진리를 가르치셨다. 예수의 양육방법은 공식적이며 정규적인 교육이 아닌 비공식적이며 비정규적인 교육이었다.<sup>213)</sup> 주님은 진리를 법칙과 교리로서 전달하시지 않고 주님의 삶을 보여 주심으로 가르치셨다(마 4:19; 11:29, 요 13:15).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외적인 의식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울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론이나 설명으로서는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자들 앞에서 직접 행하시고 보여 주심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동거하며, 생생한 현장 교육을 시키신 결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예수께서는 개인의 소중한 생명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새가족을 양육하셨다(마 6:25; 10:31; 16:26, 눅 9:25).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개인적인 교제의 원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한 영혼에게 관심을 집중하셨으며, 한 영혼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 관계를 갖도록 가르치셨다(요 4:5-42).

211)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52.

212) 최정성, 전도훈련 핸드북, 141.

213) 김갑용, "새신자 양육을 위한 운영의 실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목회신학 박사학위 논문,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2001), 38.

셋째, 예수께서는 전인교육을 통한 영적 성숙을 목적으로 새가족을 양육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각하고 결단하시며, 실천하시는 삶을 통하여 지경의를 합한 전인교육을 시키셨다. 마태복음 13장의 씨뿌리는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는 영적 성숙의 개인차를 인정하셨고(마 13:10-12), 개인차에 따라서 어느 때는 쉽게 설명하셨고, 어느 때는 깊은 영적 세계의 일을 가르치셨으며, 어느 때는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 양육하셨다. 예수께서 새가족을 양육하신 목적은 자신이 세상의 메시아임을 고백케 하며(마 16:13-20, 요 1:49; 4:26-29; 6:69; 11:27; 20:28),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게 하며(요 4:34), 새가족이 자신의 증인이 되며(눅 24:48, 행 1:8; 2:32; 3:15; 5:32), 형식적인 종교를 실질적인 복음으로 변화시키며(마 6:6; 9:13, 요 2:13-22), 어두움의 일들을 멸하시며(마 4:23, 요 5:1-18, 요일 3:8),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마 4:17; 10:7, 막 9:1, 눅 21:31)시키시는 것이었다.

## 2. 사도 바울의 새가족 양육원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후 그의 과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변화되었다(빌 3:7-8).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은 전생애를 새가족 양육을 위해서 찾아가고, 편지 쓰고, 상담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사도 바울의 양육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아기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하였다. 새가족 양육은 영적인 소아과 사역이며, 부모와 같은 관심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다.<sup>214)</sup>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살전 2:7)하였으며,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살전 2:11)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새가족을 양육할 때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호칭했으며, 양육 받은 디모데를 아들로 호칭하는 독특한 영친관계를 사용하였다(딤후 1:2,18, 딤후 1:2; 2:1). 박윤선 박사는 “디모데를 낳은 영부(靈父)는 하나님이시고(히 12:9, 약 1:18), 사람이 아니지만 형식적으

214) Waylon B. Moore,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New Testament Follow-Up), 정학봉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88), 27.

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사역으로 디모데를 중생 시켰으니 그의 영부(靈父)라고도 할 수 있으며, 참아들의 ‘참’자는 순정한 관계를 의미한다”<sup>215)</sup>고 하였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호칭하는 일에 대하여 칼빈은 디모데가 바울을 닮은 자 즉 또 하나의 바울이라는 뜻이며, 렌스키(Lenski)는 디모데에 대한 친근감을 표하는 의미라고 한다.<sup>216)</sup>

둘째, 사도 바울은 영적번식의 원리를 사용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1대요, 12제자가 2대요, 바나바를 포함한 70인의 제자가 3대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이방인이 4대라는 개념을 마음에 두고 디모데에게 새가족 양육을 통한 영적번식을 당부하였다. 사도 바울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하였다. 이 말씀에서 “내게”는 1대인 사도 바울이요, “네가”는 2대인 디모데요, “충성된 사람들”은 3대요, “또 다른 사람들”은 4대이다. 사도 바울은 개인을 선택하여 양육하는 일에 철저를 기했으며, 소수 정예화된 제자가 다시 개인을 선택하여 제자로 양육하는 영적번식을 소망하였다.

셋째, 사도 바울은 새가족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방법으로 양육하였다.<sup>217)</sup> 사도 바울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구원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여 주면서,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다(행 20:35, 고전 4:16; 7:7; 11:1, 빌 3:17).

### 3. 평신도 바나바의 새가족 양육원리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였고(행 4:36),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은총이 있었다(행 9:31). 평신도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며, 지중해 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섬사람이었다. 바나바는 레위지파의 사람으로서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아람어의 이름으로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그의 교회 생활이 사랑의 언어와 자신의 물질을

215) 박윤선, 바울서신 성경주석, 458.

216)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주석, 15권, 1015.

217) 최정성, 전도훈련 핸드북, 144.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권위자였음을 증거하고 있다.<sup>218)</sup>

평신도 바나바의 새가족 양육원리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착함의 원리이다(행 11:24, 마 5:16; 25:21, 행 10:38). 착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착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착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막 10:18, 히 6:5, 행 4:9). 거듭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요(엡 2:10), 빛의 열매가 착함이며(엡 5:9), 착한 행실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함으로 중요하다. 새제천교회는 ‘한국의 양심은 제천입니다. 제천의 양심은 새제천교회입니다’라는 표어를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착한 사람이 되려면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딤후 1:19)고 권면하고 있으며, 베드로 사도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벧전 3:16)고 하였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주신 ‘선악의 증거판’으로서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신다(롬 2:15; 13:5, 고전 8:7, 히 9:14, 딤후 1:5). 양심은 보이는 글자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면에서는 불문법(不文法)이지만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면에서는 내면의 육법전서이다.<sup>219)</sup> 새제천교회는 모든 성도가 착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살다가 주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모비마다 ‘착한 양심으로 맑고 곱게 살다간 성도’라는 글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제천교회의 성도에게 있어서 착함의 순종은 근본적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sup>220)</sup> 주님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마 6:33, 눅 10:27).

둘째, 성령과 믿음이 총만함의 원리이다(행 11:24). 성령이 총만한 바나바는 자신의 발을 팔아 값을 가지고 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으로써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헌신의 사람이었다(행 4:37). 바나바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아울러 믿음이 총만한 바나바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의 자원으로 가졌다.<sup>221)</sup> 바나바는 세상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218) 김명남, 바나바 사역교재, 23.

219) 권성수, 신앙인의 현실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3), 48.

220) Charles G. Finney, 예수꾼의 양심 (Crystal Christianity), 이계진, 김진선 역 (서울: 예찬사, 1992), 52.

221) 김명남, 바나바 사역교재, 39.

의 나라를 더 크게 보면서 영원한 하늘의 상을 소망 중에 바라며, 믿음으로 살았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땅에서 누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며 살았다. 새제천교회의 바나바들은 성령과 믿음의 충만을 사모하며 금식기도와 성경 읽기와 경건의 삶을 힘쓰고 있다.

셋째, 새가족 정착을 위한 친절의 원리이다(행 9:26-31).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새가족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고자 했으나 새가족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 이 때 평신도 바나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새가족 사울을 변론해 주었고,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중보자적 사역을 하였다. 새제천교회는 바나바 사역자들이 친절하고 따뜻하며,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힘쓰고 있다.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방문자와 새가족에게는 예배 시간의 설교보다도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가정처럼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 새가족에게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예배 후에 이어지는 친교의 시간이다. 예배 후의 시간은 새가족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시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가족을 정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다. 새제천 교회 바나바들은 새가족을 받아 들이고, 인정하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극진히 섬긴다. 옷차림은 정중하고 우아한 것을 선택하며, 표정은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부드럽고 친절 한 인사를 한다.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가 담긴 믿음의 언어를 쓰도록 지도하고 있다. 새가족과의 약속은 꼭 지키고, 바나바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교회와 담임목사만을 자랑하며 칭찬케 하고 있다(고전 1:31, 고후 10:17, 갈 6:14, 빌 3:3).

### 제 3 절 새가족 양육의 실제

지금까지 본 장에서 연구한 것은 새가족 양육자의 자세와 새가족 양육의 성경적 원리를 연구했다. 이어서 새가족 양육의 실재를 연구하되 새가족 환영의 실제, 새가족의 의식구조가 변화하는 과정, 새가족 양육의 교육과정 등을 서술코자 한다.

#### 1. 새가족 환영의 실제

새제천교회는 새가족부의 활성화가 교회의 성숙과 양적 성장에 지대한 공헌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충성을 다한다. 관계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출석한 새가족을 등록 → 예배시 환영 → 담임목사가 새가족 접견 및 교회 소개 → 등록 심방 → 구역 및 기관 편성 → 평신도 바나바의 7주간 일대일 양육 → 담임목사의 5주간 새가족 신앙교육 → 학습문답 → 37주 새가족 기초 교리교육 → 세례문답 → 바울 성서대학 → 구역장 훈련 및 양육자 훈련을 받게 된다.

새제천교회의 새가족 환영의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가족을 가장 존귀한 왕같이 모셔라(벧전 2:9, 창 35:11, 삼상 24:20, 삼하 5:3, 계 22:5). 둘째, 새가족이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생기가 넘치는 언어와 꿈의 언어를 듣도록 하라(요 3:16; 13:34, 요일 4:16, 신 33:29).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행복 자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새가족을 불편이 없도록 힘쓰되 가장 편안하게 섬겨라(룻 2:8-13, 창 18:1-8). 넷째, 새가족이 한번 이상 웃을 수 있도록 하라(잠 15:13, 시 32:11, 슥 3:14, 빌 4:4). 다섯째, 새가족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라(창 24:53; 45:22, 잠 18:16; 19:6; 21:14, 엡 2:8). 여섯째, 새가족을 갓난아기 기르듯이 사랑으로 보살피라(신 8:3, 고전 3:1-3, 벧전 2:2). 일곱째, 새가족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기도하며, 간교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대상 16:11, 마 26:41, 요 16:24, 엡 6:18, 약 5:13). 여덟째,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도록 가르치라(요 6:28-29, 엡 6:16, 히 11:1-40, 약 2:17, 요일 5:4). 아홉째, 세속적인 친구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도록 지도하라(마 28:18-20, 막 16:15, 행 1:8; 13:48, 딤후 2:2). 열 번째,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라(행 2:1-4, 히 4:12-16, 딤후 3:5, 계 21:1-22:21).

## 2. 새가족의 의식구조가 변화하는 과정

관계전도에 의하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자연인이 교회에 관심을 갖기 및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게 호감 갖기(계 3:20-22) → 2단계: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에 적응하기(히 4:16) → 3단계: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기(고전 10:24) → 4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기(요 1:12; 3:1-15; 5:24, 롬 6:23) → 5단계: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단계에서 양육이 시작됨(엡 2:8, 롬 10:10, 딤후 3:5-7, 히 4:12-13) → 6단계: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빌 2:12, 딤후 3:15-17, 뱀전 1:23, 계 5:8) → 7단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단계 즉 헌신된 그리스도인(요 15:16, 요일 3:16, 계 3:18) → 8단계: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온전함을 추구하게 되며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도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진지하게 실천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이다(마 10:40-42; 22:34-40, 고전 10:31).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는 성화를 더 깊고 넓고 높은 단계로 이끌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단계이다.<sup>222)</sup>

아울러 관계전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의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신념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요약하고자 한다.<sup>223)</sup> 1단계는 자기 중심적 신념체계는 평형 상태로서 중심에 자아가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것을 자기 만족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고한다. 그 중심적 신념과 주변적 신념이 본질상 동일하기 때문에 복음적 생활을 하지 않아도 어떤 문제 의식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평형 상태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며,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평형상태의 신념체계를 흔들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통한 도전과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한다.

2단계는 자기 중심적 신념체계의 손상 단계는 갈등상태로서 평형상태를 유지하던 삶이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갈등하기 시작한다. 주변적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자극을 받아 자신의 신념체계가 손상을 입으며, 이 손상 당한 부분이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3단계는 자기 중심적 신념체계의 회의단계는 혼돈상태이다. 이 혼돈은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며, 새로운 복음을 수용하는 계기가 된다.

4단계는 자기 중심적 신념체계의 부정단계는 진공상태로서 자기 중심적 신념이

222) 이용남 편, 새신자 목회Ⅱ (서울: 임마누엘 미디어, 1993), 72-77.

223) 하용조 편, 두란노 목회자료 큰백과 26권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875-881.

붕괴되었을지라도 새로운 신념이 정착하지 못한 불안한 상태이다.

5단계는 기독교의 복음과 접하면서 복음을 탐색하는 상태이다. 복음을 중심에 수용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념체계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단계는 아직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 명목적인 교인으로 남게 된다.

6단계는 새로운 신념체계의 수용 단계로서 변형 상태이다. 새가족 중심에 기독교적 신앙을 수용하는 과정으로서 중심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새가족의 신념체계가 변형되어 가는 동안에는 갈등과 긴장이 계속된다.

7단계는 새로운 신념체계의 정착단계로서 안정상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신념체계의 중심에 정착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한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감격이 있지만 주변의 신념은 여전히 옛 모습을 지닌채로 있기 때문에 7단계의 안정상태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8단계는 새로운 신념체계의 확산단계로서 재갈등의 상태 또는 양육의 과정이 시작된다. 새가족의 마음 중심에 정착한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기존의 남아 있는 신념들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 단계부터는 회심의 단계가 아닌 양육의 단계로서 복음의 신념체계가 얼마만큼 확산 되었느냐가 성화(sanctification)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9단계는 새로운 신념체계의 완성 단계로서 평형상태이다. 새가족의 중심과 주변의 신념체계가 기독교의 신앙으로 통일되었으며,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쁨으로 누리는 단계이다. 이 단계가 새가족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 3. 새가족 양육의 교육과정

새제천교회의 새가족 양육을 위한 교육은 새가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함을 목표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는 것이다. 교육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이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는 예배, 성경공부, 전도, 성도의 교제, 봉사의 요소가 포함되며, 이 모든 요소

는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sup>224)</sup> 새제천교회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교육과정의 구성원리를 하나님 중심원리, 성경 중심원리, 실제성의 원리에 두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k)가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을 인용하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sup>225)</sup>이라고 한 것처럼 새제천교회의 새가족 양육 목적도 헤르만 바빙크와 동일하다.

새제천교회의 평신도 바나바가 새가족을 양육하는 1 대 1 양육 7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과 우리교회, 하나님의 교회, 제2과 우리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제3과 우리교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 제4과 교회의 사명, 제5과 교회와 예배, 제6과 교회와 축복, 제7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평신도 바나바와 새가족의 1 대 1 양육이 끝나면 이어서 담임목사와 새가족이 5주 동안 학습을 위한 신앙교육을 시행하며, 교육은 다음과 같다. 제1과 예수는 누구입니까? 제2과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제3과 예수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4과 예수를 만나십시오. 제5과 학습 문답을 위한 안내이다.

새가족이 담임목사와 함께 5주 동안 학습을 위한 신앙교육을 마치면 학습을 받고, 이어서 37주 동안 기초교리 교육의 교육과정을 공부한다. 기초교리 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과 우리교회의 목회방향은 무엇인가? 제2과 계시란 무엇인가? 제3과 성경은 진리인가? 제4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5과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제6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무엇인가? 제7과 인간은 무엇인가? 제8과 죄란 무엇인가? 제9과 예수는 누구인가? 제10과 예수는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가? 제11과 성령은 누구인가? 제12과 성령과 성도의 관계는 무엇인가? 제13과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제14과 오순절은 무엇인가? 제15과 성령충만이란 무엇인가? 제16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I) 제17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II) 제18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III) 제19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IV) 제20과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가? 제21과 교회는 무엇인가? 제22과 예배모범은 무엇인가? 제23과 내세는 있는가? 제24과 이단이란 무엇인가? 제25과 구역조직은 무엇인가? 제26과 구역장의 직분은 무엇인가? 제27과 구역 부흥의 비결은 무엇인가? 제28과 구역장은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29과

224) 김종석 편, 주교교사 교육핸드북 (서울: 총회교육부, 1989), 70.

225) Ibid., 72.

구역장은 성경연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제30과 예배란 무엇인가? 제31과 기도란 무엇인가? 제32과 심방이란 무엇인가? 제33과 상담이란 무엇인가? 제34과 전도란 무엇인가? 제35과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제36과 찬양이란 무엇인가? 제37과 상례란 무엇인가? 새제천교회는 기초교리 교육이 끝나면 희망하는 새가족에게 바울성서대학 과정 4년, 구역장 훈련, 양육자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 제 4 절 새가족 양육의 사후관리

새제천교회는 새가족의 양육사역을 평신도 바나바와 관계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잘하고 있는 좋은 점과 잘못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며 토론하고 있다. 새가족의 양육 내용과 양육 실적은 반드시 분석되어야 한다. 월별, 분기별 실적을 분석함으로써 교회의 양육 목표와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 새가족의 신앙성장, 새가족의 낙심, 새가족의 질병과 입, 퇴원 소식, 새가족의 이사 또는 다른 교회로 이적, 기존 신자와의 교우관계, 교회정착에 따른 기관소속, 양육하는 바나바의 문제 등을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상벌제도로 도전과 자극을 주면서 새가족 양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제 7 장 결 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 무신론 사상 등을 가지고 사는 이웃과 함께 종교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혼란스럽게 살고 있다. 이토록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새제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복음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사역만 온전히 감당한다면 성도는 하늘의 상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며, 교회는 부흥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전도공동체로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 사역을 오랫동안 생각하던 중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은 제천, 내일은 한국, 모래는 세계를 향해 전하기 위한 관계전도 전략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장의 결론은 본 논문의 요약과 관계전도를 위한 본 연구자의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제 1 절 요약

제1장 서론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전도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언행이 좋은 소식이 되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세워주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존경하며 섬기는 향기 가득한 삶으로 이웃을 감동시켜야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한 삶의 청지기가 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며, 자연스럽게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관계전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아울러 이웃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봄으로써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관계전도가 필요한 것임을 밝혔다. 관계전도는 전도운동의 초점



을 교회 성장에서 한 사람의 영혼에게로 전환하게 하며, 지 교회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에 두게 한다. 관계전도는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다정스런 감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고, 동행의 원리로 전도하기 때문에 말로 가르치는 그 이상의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관계전도는 21세기 새시대의 상황에 어울리는 구원전도 사역이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전략이다. 아울러 본 논문은 새제천교회의 목회현장을 토대로 연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새제천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지상계명을 지킴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임을 설명했다. 새제천교회의 사역 원리는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양육 공동체, 친교 공동체, 예수 재림 환영 공동체로 삼고, 기도목회, 전도목회, 말씀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배달하고 있다. 아울러 새제천 교회의 비전과 함께 제천 지역사회의 현황과 새제천교회의 현황을 밝히고 있다.

제3장에서는 관계전도의 신학적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관계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관계전도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면 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계전도의 효율성을 연구하였으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전도, 사도들의 관계전도, 평신도의 관계전도를 연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불신자의 문화에 민감한 관계전도를 하였으며, 전도여행과 문서를 통한 관계전도를 실천하였음을 밝히었다. 전도에 있어서 동일시 원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삶과 그가 느끼는 감정 안으로 조건 없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단절은 전도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최고 위기로 부상하는 문제이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께서 불신자 문화가 부패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시어 인간을 찾아 오셨으며, 버림받아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던 이웃을 극진히 존중하고 섬기셨던 예수를 본받아 불신자의 세계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불신자와 동

일한 자리에서 그들의 희로애락에 동참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이루어질 모든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필자는 관계전도를 위하여 기독교 대중 문화의 창출을 주장하였으며, 지역사회 정보연구원, 가정문화 회복운동, 기독교 문화원 사역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관계전도를 위한 사회봉사를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교회 부흥의 비결은 잘 훈련된 성도가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는 원칙 가운데 관계전도를 위한 청지기의 생각훈련, 언어훈련, 생활훈련을 연구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시중 드는 성도들이 함부로 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미나답의 아들 웃사에게서 배울 수 있었다(삼하 6:1-8). 만일 웃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미리 철저하게 받았다면 충성스럽게 일한 후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받은 교육 외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고, 사도 바울과 예수까지도 광야 훈련의 모범이 필요했던 것이다. 새제천 교회는 전도자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 가운데 절대 긍정의 생각과 절대 사랑의 생각을 갖도록 힘쓰고 있다. 전도자의 언어는 절대 믿음의 말과 절대 기도의 말을 하면서,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한다. 아울러 전도자의 생활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불신자와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한다. 특별히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는 천국의 기쁨이 풍요로와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6장에서는 관계전도를 통하여 출생한 새가족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된 청지기로 양육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새가족 양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전달이라는 차원에서 양육자가 그리스도와와의 신비적인 연합으로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새가족 양육의 원리로서 예수의 양육원리, 사도 바울의 양육원리, 평신도 바나바의 양육원리를 제시하였다. 새가족을 가장 존귀한 왕같이 모셔야 하며, 새가족에게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꿈의 언어로 격려하며, 간교한 사탄이 새가족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것을 주문하였다. 새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발달과정과 의식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을 연구하였으며, 새제천교회의 새가족 양육을 위한 교과과정과 새가족 양육의 사후관리를 서술하였다.

## 제 2 절 제안

오늘의 새제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 가는 영혼을 계속 구원하고 훈련함으로써 성숙한 성도로 양육시켜야 한다. 사단에게 묶이고 포로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관계전도임을 확신하며, 효율적인 이 사역을 위한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성도들이 왜 사는가에 대한 투명하고 확실한 해답을 갖게 해야 한다. 성도의 존재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고전 10:31). 문제는 성도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세속 문화에 길들여진 세상사람과 다른 점이 별로 없는 육에 속한 성도라는 사실이다. 마음은 경건의 능력이 총명한 천국시민이 되길 소원하지만 육신이 약한지라 늘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성도의 본업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사 출애굽의 기업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천국의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천국 사역의 최고 가치는 관계전도를 통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확신케 해야 한다. 관계전도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고후 5:14)여야 한다.

셋째, 성도들에게 집중적인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 깨달음에 기초한 신앙인격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살려야만 하는 영혼이 보이고, 다시 건축해야만 하는 무너진 가정교회와 성벽이 보이며, 부르고 외칠 수 있는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

넷째, 성도들에게 깊은 기도를 체험케 해야 한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지성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롬 9:3)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웃의 장점이 눈에 보이고, 이웃의 은사를 칭찬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겸손한 생각을 갖도록 훈련해야 한다. 사람들이 짓밟아도, 짓밟아도 끝없이 용서하는

대지의 겸손, 세상의 썩고 죽은 것까지도 말없이 받아들이는 사랑이 넉넉한 대지의 넓은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성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이 성도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격과 올바른 생활이다. 성도의 인격이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하여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되는 것이다. 관계전도는 전도자의 신앙 인격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일곱째, 성도와 불신자의 동일시 원리를 훈련해야 한다. 관계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불신자들과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불신자들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위로할 때 성도가 그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 됨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 불신자들의 세상으로 성도들이 들어가서 향기의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

여덟째, 관계전도를 위한 기독교 문화사역을 개발해야 한다. 새제천교회가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보원을 운영하며,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와 같은 가정문화 회복운동과 기독교 문화원 사역을 통하여 이웃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

아홉째,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파도타기 기술을 습득케 해야 한다. 제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영적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다. 새제천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영적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파도타기 선수들이 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적 파도를 그 심령에 일으키신 것이므로 이 수용성에 민감해야 한다. 이 불신자를 새가족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열 번째, 복음의 다리 놓기 공사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새가족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따라 말씀과 성령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군사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결국 새제천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의 벅찬 감격과 넘치는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얼굴마다 예수의 광채가 빛나는 환한 웃음

과 속사람 깊은 곳으로부터 천국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한다. 그러면 관계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새제천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계자료와 연구의 범위가 제한되었음을 밝힌다. 향후 한국교회에서 관계전도를 통한 전도사역의 연구가 신학교 전도학 교수와 지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더욱 깊고 폭 넓게 연구됨은 물론 한국교회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문서적

- 갑총만. 대전중앙교회 50년사. 대전: 도서출판 큰 빛, 1997.
- 강정규. 한국의 7대 교회. 서울: 종로서적, 1983.
- 강준민. 뿌리깊은 영성. 서울: 두란노, 2000.
- 고병우. 천명 전도 할 분 손 드시오. 서울: 대장간, 2000.
- 국제신학연구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학 II. 서울: 서울서적, 1993.
- 권성수. 신앙인의 현실.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3.
- 권이종 편.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합동문화출판사, 1984.
- 권희필 편. 2000년 제20회 제천시 통계연보. 제천: 제천시청 기획담당관실, 2000.
- \_\_\_\_\_. 제천시 통계 2001. 제천: 제천시청 기획담당관실, 2001.
- 김경수. 능력 받고 땅 끝까지. 서울: 은혜 출판사, 1994.
- 김길복.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서울: 예찬사, 2000.
- 김남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울: 규장 문화사, 1999.
- 김명남. 바나바 사역교재. 성남시: 바나바교육원, 2001.
- 김명혁. 역사신학 및 선교신학 연구. 서울: 총회신학대학, 1979.
- 김병원외 편.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6.
- 김상복.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쉽.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 \_\_\_\_\_. 목회자의 리더쉽.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 김세운. 인자 - 하나님의 아들. 서울: 엠마오, 1995.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수진. 평신도 운동과 교회 성장.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1989.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영배 편. 전도 십계명.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국내 전도국, 1997.

-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1.
- 김영태. 총동원 전도와 교회성장. 서울: 글로리아, 1992.
- 김익달 편. 철학대사전. 서울: 주식회사 학원사, 1974.
-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라. 서울: 기독신문사, 1999.
- \_\_\_\_\_. 차세대 한국 교회의 모델. 서울: 기독 신문사, 2000.
- \_\_\_\_\_.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키우라. 서울: 기독 신문사, 2001.
- 김종석 편. 주교교사 교육핸드북. 서울: 총회교육부, 1989.
- 김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6.
- 김형천. 효과적인 복음전도.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7.
- 나겸일. 총동원 전도와 교회성장. 서울: 샘물사, 1992.
- 나일선. 교회성장의 원리. 서울: 서울 성경학교 출판부, 1990.
- 동아일보사 편. 한국 근대인물 백인선. 서울: 동아일보사, 1970.
- 두란노 편. 전도 방법론 철저분석. 서울: 두란노, 1992.
- 맹용길. 평신도와 교회. 서울: 예장 총회 전도부, 1981.
- \_\_\_\_\_. 기독교와 미래. 서울: 쿨란 출판사, 1995.
- \_\_\_\_\_. 현대인과 윤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명성훈. 인생헌법. 서울: 도서출판 크레도, 1994.
- \_\_\_\_\_. 교회 성장 반드시 됩니다. 서울: 국민 일보사, 1995.
- \_\_\_\_\_. 당신의 교회도 성장 할 수 있다. 서울: 국민 일보사, 1995.
- \_\_\_\_\_. 뒷문을 막아라. 서울: 크레도, 1995.
- \_\_\_\_\_. 성령과 함께. 서울: 도서출판 크레도, 1996.
- \_\_\_\_\_. 교회성장의 영적 차원. 서울: 서울 말씀사, 1997.
- \_\_\_\_\_. 장년출석 300명 돌파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 1998.
- \_\_\_\_\_. 창조적 리더쉽. 서울: 서울 말씀사 출판부, 1999.
- \_\_\_\_\_. 부흥 뱅크. 서울: 규장 문화사, 1999.
- \_\_\_\_\_.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1998.
-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 민경설. 전도의 다이내믹 파워.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9.

- \_\_\_\_\_. 전도 동력 리포트.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9.
- 민경운 편. 새신자 목회세미나자료집. 서울: 장석교회 새신자부, 1993.
- 박건. 멘토링 목회 전략. 서울: 나침반사, 1999.
- \_\_\_\_\_. 현장에서 본 새들백 교회. 서울: 한국 강해 설교학교, 1999.
- 박교성. 선교적 측면에서 본 지역사회 속의 목회자. 서울: 서울신학대학원, 1977.
- 박근영. 정보화 시대의 선교전략에 대한 고찰. 서울: 미래사회 교회연구소, 1996.
-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기독출판 에벤에셀, 2000.
- 박아론. 새벽기도의 신학. 서울: 세종문화사, 1980.
- 박영률. 리더쉽과 교회성장. 서울: 성광 문화사, 1991.
- 박영호. 개인전도 핸드북.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 백운형 편. 매력있는 교회 만들기.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박운선. 공관복음 성경주석. 서울: 영음사, 1973.
- \_\_\_\_\_. 성경주석 고린도후서. 서울: 영음사, 1973.
- 박종무. 개인전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각, 1985.
- 박종순. 교회성장과 성경공부. 서울: 혜선 출판사, 1984.
- 박형용. 박형용 박사 저작전집 교의신학.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77.
- 서경남 편.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서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2001.
-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 서원, 1988.
- 성갑식. 기독교와 문화.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7.
- 손봉호 편. 현대교회와 봉사생활.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 송귀옥. 개혁주의 기도학. 서울: 도서출판 크리폼, 1999.
- 송창근 외 13인. 성장하는 14 교회 청년대학부 부흥전략. 서울: 기독신문사, 1999.
- 송천호.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진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신경직. 전도 뱅크. 서울: 기독신문사, 2000.
-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3.
- \_\_\_\_\_. 성장하는 교회에는 성장원리가 있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5.
- \_\_\_\_\_. 신약총론.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7.
- 아나 야스오.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 이경민 역. 서울: 도서출판 매일, 2000.



- 안영복, 이근삼, 한철하.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교회론과 목회철학. 13권.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 안주영. 교회 부흥 4 전략. 서울: 나침반사, 2000.
- 양은순.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 여운학. 이슬비 전도학교 학생지침 및 강의안. 서울: 규장 문화사, 1992.
- 오성택. 파워 청지기. 서울: 엘맨 출판사, 2000.
- 오장열. 교회성장과 개인전도. 서울: 양문 문고, 1992.
- 오정현. 새천년 사역의 패스 파인더. 서울: 두란노, 2000.
- 목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서원, 1992.  
\_\_\_\_\_.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서울: 사랑의 교회, 1993.  
\_\_\_\_\_.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2000.  
\_\_\_\_\_. 전도자. 서울: 규장 문화사, 2000.
- 목한흠 외. IQ목회에서 EQ목회로의 전환. 서울: 기독신문사, 1997.
- 유의웅 편.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윤성호. 왜 무엇을 전도해야 하는가?. 서울: 청우사, 1994.  
\_\_\_\_\_.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명령이다. 서울: 예찬사, 1995.  
\_\_\_\_\_. 전도시 반대질문 100가지. 서울: 예찬사, 1996.
- 이근삼. 칼빈·칼빈주의. 부산: 고신대출판부, 1972.
- 이동원. 열두문 열두돌. 서울: 나침반사, 1987.
-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 폭발. 서울: 기독신문사, 2001.
-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6.  
\_\_\_\_\_.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문화사, 1999.
- 이순한. 사도행전 강해.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93.  
\_\_\_\_\_. 누가복음서 강해.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95.
- 이영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서울: 크레도 미션, 2000.
- 이용남. 새신자 목회. 서울: 도서출판 그린, 1992.  
\_\_\_\_\_. 새신자 목회 II. 서울: 도서출판 임마누엘 미디어, 1993.
- 이재범. 성장하는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 서울: 신망애 출판사, 1996.

- 이재은 편. 기독교 문장 대백과사전. 서울: 성서연구사, 1993.
- 이중표 외. 교회 발전을 위한 인격개발. 서울: 쿤란출판사, 1991.
- 이재창. 104가지 십계명. 서울: 도서출판 엘피스, 2000.
- 이종윤. 교회 성장론. 서울: 정음 출판사, 1983.
- 이창남. 21세기 교회부흥과 성장의 키를 찾아라. 서울: 도서출판 Grace Top, 1997.
- 임성빈.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 임진택 외. 현대의 전도전략. 서울: 한국 문서 선교회, 1982.
- 장은일. 신사도적 교회 만들기 10단계 전략. 서울: 기독신문사, 2000.
-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8.
- 장학일. 교회의 체질을 바꿔라.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 전가화. 새신자 신앙훈련 교재. 서울: 은혜사, 1988.
-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누가복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 \_\_\_\_\_. 그랜드 종합주석 사도행전.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 \_\_\_\_\_.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1.
- 정문호. 성경적 교회 성장학.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8.
- 정성구. 실천신학 개론.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80.
- 정일웅 편.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전망과 과제. 서울: 총신대학 부설 한국 교회 문제연구소, 1991.
- 정용섭. 교회성장과 청지기. 서울: 대한 기독교 협회, 1992.
- 정찬덕. 밀레니엄 시대의 파워전도. 서울: 베드로 서원, 1999.
- 정태영. 천국으로 가는 길. 제천: 새제천교회 출판부, 1991.
- 조선출 외.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조용기. 삼박자 구원. 서울: 서울서적, 1988.
- 조은태. 전도학 총론. 서울: 타문화권목회연구원, 1995.
- 조태환. 평신도를 목회의 파트너로 삼아라. 서울: 나참반 문화사, 1999.
- 총회 국내 전도 위원회 편. 전도 이야기.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전도부, 1996.
- 최정성. 전도훈련 핸드북. 인천: 도서출판, 1998.
- 최기채. 집사 장로 교양과 훈련. 서울: 성광문화사, 1996.

-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사, 1999.
- 최인식.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최정성. 전도 훈련 핸드북. 인천: 도서출판 예향, 1998.
- 최준혁. 예수 중매쟁이. 인천: 에스라 서원, 1993.
- 하용조 편.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 한경철.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1.
- 한국 대학생 선교회 편. 전도 요원 훈련 교재. 서울: C.C.C., 1989.
- 한영제. 한국 기독교 성장 100년. 서울: 기독교문사, 1982.
- \_\_\_\_\_. 기독교 대 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홍순화.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네비게이토, 1981.
- \_\_\_\_\_. 제자 배가의 원리. 서울: 네비게이토, 1982.
- \_\_\_\_\_. 효과적인 교회 성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황성철. 한국교회 성장정체의 현안과 심층 그 대안의 모색.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6.
- 황을삼.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서울: 할렐루야 서원, 1992.
- \_\_\_\_\_. 전도 현장에서의 지혜. 서울: 할렐루야 서원, 1993.
- 황의영. 크리스천 리더십.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0.

## 2. 번역 서적

- Aldrich, Joseph C. 생활전도 (Life-style Evangelism). 오정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Anderson, Leith. 21세기를 위한 교회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황성철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 Armerding, Hudson T. 리더십 업그레이드 (The Heart of Godly Leadership). 김기제 역. 서울: 엘맨출판사, 1999.
- Ayres, Francis O. 평신도의 사명 (The Ministry of the Laity). 성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5.
- Barna, Geroge.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The Frog in the Kettle). 탁영철 역. 서울:

- 베다니 출판사, 1996.
- \_\_\_\_\_.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 (Marketing the Church). 김광점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7.
- Berkhof, Louis. 기독교 신학개론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윤 역. 서울: 은성문화사, 1974.
- Bounds, E. M. 기도의 능력 (Power Through Prayer). 이정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1.
- Braoudakis, Paul., ed. 월로우 크릭 지도자 핸드북 (Church Leaders Handbook). 김양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8.
- Bruce, A. B. 열 두 제자훈련 (The Traing of the Twelve). 김영봉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4.
- Cedar, Paul. 섬기는 지도자.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2.
- Dawson, Christopher. 기독교 문화와 현대문명.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Donahue, Bill. 월로우크릭교회 소그룹이야기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송영선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 Eims, Leroy.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서울: 한국네비게이토 선교회, 1982.
- \_\_\_\_\_. 추수하는 일군 (Laboring in the Harvest).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6.
- \_\_\_\_\_. 이렇게 전도하라 (Winning Ways).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0.
- Engen, Van C.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5.
- Fickett, Harold L. 교회 성장의 열가지 원리 (Hope for Your Church). 조해수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4.
- Finney, Charles G. 예수꾼의 양심 (Crystal Christianity). 이계진, 김진선 역. 서울: 예찬사, 1992.
- Ford, Leighton.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Good News is for Sharing). 이숙희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7.
- George, Carl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8.
- Getz, Gene A. 가정은 작은 교회며, 교회는 큰 가정이다 (The Measure of a Family). 정광욱 역. 서울: 도서출판 만나, 1992.
- Haggard, Ted. 지역교회 최고의 사명 (Primary Purpose). 정용길 역. 서울: 죠이 선교회 출판부, 1998.
- Hanks, Billie, Jr. & Shell, William A. 제자도 (Discipleship). 주삼지 역. 서울: 나침반사, 1983.
- Harrison, Everett F. 신약개론. 정성구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3.
- Hendricks, Howard. 사람을 세우는 사람 (Standing Together).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 Hendricks, Kraemer. 평신도 신학 (The Theology of Layman).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 Hendrickson, Walter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네비게이트, 1981.
- Hocking, David L. 교회 성장 중심의 성경적 목회방법 (The World's Greatest Church). 진영화 역.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사, 1990.
- Hull, Bi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The Disciples Making Church). 박영철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0.
- \_\_\_\_\_. 변혁 21세기 교회의 생존전략 (Seven Steps to Transform Your Church). 마영래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 Hunt, George L. 현대인과 교회. 김관석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1.
- Hunter, George G.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Church for the Unchurched). 홍용표 역.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9.
- Hybels, Bill. ed. 차세대 목회지도력을 위한 30가지 전략 (Leading Your Church Through Conflict and Reconciling). 김창대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 Hybels, Bill & Mark Mittelberg.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한기웅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 Hybels, Lynne & Bill.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교회 (Rediscovering Church).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8.

- Icenogle, Gareth Weldon.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안영권, 김일선 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7.
- Johnes, D. M. Roid. 성령론. 홍정식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9.
- Kane, J. Herbert. 기독교 세계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8.
- Kennedy, James. 현대전도.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2.
- Kuiper, R. B. 전도신학 (God Centred Evangelism). 박수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Laurie, Greg. 부흥하는 교회의 전도파워 (The Upside - Down Church). 차동재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0.
- Leith, John H.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오창윤 역.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9.
- Maclung, Floyd. 효과적인 전도 (Effective Evangelism). 예수전도단 번역.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1998.
- Maxwell, J. C. 열매 맺는 지도자 (Be All You Can Be). 오연희 역. 서울: 두란노, 1991.
- \_\_\_\_\_.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우라 (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8.
- Miller, Keith. 현대인을 위한 복음전도 (The Scent of Love). 전성화 역. 서울: 보이스사, 1990.
- Moore, T. M. 전 교회적 전도 (Whole Church Evangelism). 김성건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Moore, Waylon B.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New Testament Follow-Up).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8.
- Mouw, Richard J. 정치전도 (Political Evangelism).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88.
- Murphrey, Buddy. 그물을 당겨라. 정학봉 역. 서울: 동서남북, 1992.
- Neighbour, Ralph W. 셀 교회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Nicholas, Ron. eds.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9.
- Rainer, Thom S. 교회성장 교과서 (The Book of Church Growth).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2000.
- Ridderbos, Herman. 하나님 나라 (The Coming of the Kingdom).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 Schaeffer, Francis A. 복음전도 방법 (Two Contents : Two Realities). 정혜숙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4.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_\_\_\_\_.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 지침서. 오태균, 이준영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Smith, Molton H. 개혁주의 전도론. 김남식 역.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1.
- Stott, John R. W. 현대교회와 선교.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_\_\_\_\_.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김기영 역. 서울: 엠마오, 1987.
- Sunny, Rolle C. 개인전도 하는 법. 서흥종 역. 서울: 목회자료사, 1988.
- Terry, John Mark.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Church Evangelism).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with Original Text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송종섭, 전상기, 송봉길 역. 서울: 소망사, 1979.
- Thompson, W. Oscar. 관계중심 전도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 주상지 역. 서울: 나침반사, 1984.
- Toffler, Elbin.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홍갑순 역. 서울: 도서출판 나나, 1997.
- Torrey, R. A. 어떻게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까? (How to Bring Man to Christ). 김준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Towns, Elmer L. 복음전도 전략.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_\_\_\_\_.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10 of Today's Most Innovative Churches). 김기홍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_\_\_\_\_. 네트워킹 전도 양육. 김미경 역. 서울: 나침반사, 1995.
- Turnbull, Ralph G. 주님의 성만찬 (At The Lord's Table). 문석호 역. 서울: 생명의

- 말씀사, 1978.
- Twentier, Jerry D. 칭찬의 위력 (The Positive Power of Praising People). 정정숙 역. 서울: 기독교교문사, 1996.
- Vantil, Henry R. 칼빈주의 문화관. 이근삼 역, 서울: 영음사, 1972.
- Wagner, C. Peter.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Leading Your Church Growth). 김선도 역. 서울: 광림, 1985.
- \_\_\_\_\_. 교회성장 원리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 \_\_\_\_\_. 성서적인 교회성장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홍철화 역. 서울: 보이스사, 1994.
- \_\_\_\_\_. 교회성장 전략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명성훈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 \_\_\_\_\_. 건강한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 (The Healthy Church). 홍용표 역.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7.
- Walsh, Brian.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변혁. 김향안 역. 서울: 도서출판 글로리아, 1989.
- Warning, Waldo J. 현대 교회성장의 새로운 전략. 정사무엘 역. 서울: 예찬사, 1986.
- Warren, Rick. 새들백 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회,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 Werning, W. J. 현대 교회성장의 새로운 전략 (Vision and Strategy for Church Growth). 정사무엘 역. 서울: 예찬사, 1992.
- Wilson, James I. 전도 전략원리 (The Principles of War).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3 . 영문 서적
- Anderson, Ray S. The Praxis of Pentecost.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1.
- Arnold, Jeffrey. The Big Book on Small Group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2.
- Barna, George. Turning Vision Into Action. Ventura: Regal Books, 1996.



- George, Carl F.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ompany, 1992.
- Hersey, Paul and Kenneth H. Blanchard and Dewey E. Johnson.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1996.
- Hestenes, Roberta. Using the Bible in Group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 Johnson, David W. and Frank P. Johnson. Joining Together. Boston: Allyn and Bacon, 1997.
- Lewis, Larry L. The Church Planter's Handbook.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 McGavran, Donald A. How Churches Grow: The New Frontiers of Mission. New York: Friendship, 1966.
- \_\_\_\_\_. The Bridges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 New York: Friendship, 1981.
- \_\_\_\_\_. Effective Evangelism: A Theological Mandate.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8.
- Malphurs, Aubrey. Advanced Strategic Planning. Grand Rapids: Bakers Books, 1999.
- \_\_\_\_\_. Developing a Vision for Ministry in the 21st Century.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 Meeks, Wayne A. The First Urban Christi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 Prince, Matthew. Winning Through Car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 Rainer, Thom S. Effective Evangelical Churches. Nashville: Broadman Press, 1996.
- Vananken, Sheldon. A Severe Mercy. New York: Harper and Row, 1977.
- Wagner, C. Peter. Spiritual Power and Church Growth. Altamonte Springs: Creation House, 1986.
- \_\_\_\_\_.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Ventura: Regal Books, 1987.
- \_\_\_\_\_.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Ventura: Regal Books, 1990.
- White, James E. Rethinking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s Books, 1997.

Vita of  
Tai Young Jung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New Jecheon Prebyterian church, Chungbuk, S.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August 9, 1952  
 Birthplace: Kyunggi-Do, S.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Eun Ryung Kim  
 with two Children, Maria and Miriam  
 Home Address: 93-2, Haso-Dong, Jecheon-Si, Chungchongbuk-Do,  
 S. Korea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October 11, 1983

Education

B.A.: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1976  
 M.Div.: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82  
 M.Ed.: Yonse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Korea, 1986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U.S.A. 2002

Personal Experience

3/1982 to 12/1988 Full-time Minister  
 Holt Children's Services, Inc., Seoul, Korea  
 10/1989 to present Senior Pastor of New Jecheon  
 Presbyterian Church, Chungbuk, S. Korea